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제13권 제1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2, 6, Vol. 13, No. 1, 101-159.
doi <https://doi.org/10.12964/jsst.22003>

이혼가정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에 대한 연령별 고찰

A Study on the Symbols in the Sandplay Therapy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by Age

홍 은 주
Hong, Eun Joo

김 효 은
Kim, Hyo Eun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이혼가정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에 대한 연령별 고찰

A Study on the Symbols in the Sandplay Therapy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by Age

홍 은 주*
Hong, Eun Joo

김 효 은**
Kim, Hyo Eun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of 8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by age and analyzed these cases by applying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ccording to Stake's(1995) reactive evaluation. We found, first, among the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that the symbol revealed in the sandpictures of the youngest (7-year-old) children was a negative maternal symbol. Second, the symbol revealed in the sandpictures of the next oldest (9-year-old) children was alchemical purification and transformation. Third, the symbol revealed in the sandpictures of children at the end of childhood (11 years old) was self-arrangement and struggle. Fourth, the symbol revealed in the sandpictures of children aged 12 to 13, the early age of adolescents, was the appearance of the paternal circle. The results revealed the development of a masculine consciousness that overcame dependence on motherhood and transitioned into a patriarchal world. In this way, the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re-experienced relationships through symbols in the process of sandplay therapy to achieve self-development by age, deconstructing the mental structures, and reaching the stage of self-arrangement, revealing their progress toward growth.

Key words : symbol, sandplay therapy, child, divorced family, age

* 주저자, 을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교신저자, 을지대학교 아동학과 강사(khe4444@hanmail.net)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혼가정을 또 다른 가정생활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 믿고 자녀를 위해서는 힘든 결혼생활도 참고 이겨 내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이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차츰 전환되고 있고, 미디어는 이혼가정이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을 경쟁하듯 방송하며, 이혼가정이 새로운 콘텐츠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혼은 더 이상 사회적 낙인이 아닌 홀로서기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녀에게 이혼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된다. 당사자인 부모는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는 부모의 이혼이 충격 그 자체이므로 부모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닌 채로 살아가게 된다. 이에 부모는 자녀와 함께 이혼을 신중히 결정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누가 양육하고 어떤 방식으로 면접 교섭이 이루어져야 자녀의 정서적인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개 부모는 자신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자녀의 복리보다는 자신의 복리를 우선시하고, 더 나아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도 한다(강은숙 외, 2018). 따라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 이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돕기 위한 방안에 보다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가정의 부모는 이혼 후 자녀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동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 심리치료에는 명상과 꿈, 이미지, 판타지, 모래장면 등을 통해 인간 본성의 상상력을 사용해 의식과 소통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Weinberg, 2010). 이러한 심리치료 방법 중 모래놀이치료는 인간 정신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막혀 정신·신체화 증상을 나타낼 때, 치료자가 지적·영적 측면을 포함한 전체 인격의 발달 가능성을 담아 주는 ‘자유롭고 보호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아동의 자기(Self)를 배열하고 발현시켜준다(장미경, 2017).

이혼가정 자녀의 모래놀이 상자에서 자녀는 두 개의 분리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다(Görtz, 2016). 한 부모의 세계에는 좋은 것이 있고, 또 다른 부모의 세계에는 나쁜 것이 표현된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분리된 두 개의 세계를 표현한 아동에게 무엇보다도 보호된 공간 안에서 ‘중립적인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래놀이치료가 이혼가정 아동에게 미치는 치유적인 기능은 이혼가정 아동의 분열된 정서에 균형을 이루게 해주고, 단절되었던 성격의 측면들을 통합시켜 주며, 성격의 조절기능

이 강해지도록 도와서 일상생활에 회복을 이루어 준다는 점이다(심희옥, 2011)

가정불화로 가정해체위기를 경험한 초등 5학년 남아의 모래놀이치료 연구 결과, 부모의 갈등과정에서 혼돈과 가족 간의 단절, 부(父)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위협이 아동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은 교사에 대한 반항과 규칙위반, 공격적인 행동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는 행동화를 드러냈다.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후기에 이르러서 바닥을 드러낸 “깊은 바다”와 나쁜 기운을 모두 바다에 날려 보내는 “정령”의 상징이 등장해 아동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창조의 의미와 성장과 성숙의 통합으로 가는 변화를 보였다(반평자, 우주영, 2013). 이 연구에서 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내담 아동 한 명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 20명의 모래놀이치료에서 표현된 상징을 비교한 결과, 부모 별거 아동에게서 부모나 성인이 없는 “아기와 어린이”가 자주 등장했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외롭고 쓸쓸한 집”이 나타났으며, 칼과 무기로 “찌른다, 죽인다, 도망간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공격”하는 상징이 나타났다. 또한 괴수나 괴물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동굴과 화산”을 통해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부모 별거 아동은 모래놀이 치료를 통해 아기와 집, 공격, 죽음과 동굴, 화산이라는 상징을 표현했고,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깊은 내면의 분노, 거절감과 수치감을 외부로 나타내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의 외로움과 접촉할 수 있었다(김유선, 2017).

또한 중국 조선족 한부모가정 아동 48명의 모래놀이치료에서, 치료 초기에는 부모 부재로 인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하는 모습과 “괴물”이 공격하는 모습, “아이”를 빼앗아가거나 모래바람이 부는 “재난 상황과 전쟁 상황”으로 묘사하였다. 이후 치료 후기에 이르러 “모래 비”가 내리고 “집”을 공사하며 “마을”이 정돈되고, 먹을 것을 먹고 질서가 잡히는 양육과 돌봄의 상징이 나타났고, “잃어버린 소중한 보석”을 찾고, 길이 “다리”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소통이 나타났으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내용으로 상징이 표현되었다. 연구 결과, 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과 한부모가정 아동의 정서적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작용하여 상징을 파악하는데 좀 더 문화적인 면밀함이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김려정, 2019).

이와 같이 이혼가정 자녀의 모래놀이 상징에는 바다와 정령, 부모 없는 아기와 외로운 집, 동굴과 화산, 모래바람과 모래 비, 병원과 공사, 집과 보석 등 두 개의 분리된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출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2~4세 연령에 부모 이혼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이혼가정 아동이 성장하여 각각 연령별로 표현한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상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혼 전 부모의 불화는 긴장된 가정 내 분위기를 만들어 자녀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한 쪽의 부모가 집을 나가는 별거 사태가 벌어지면 자녀들은 심한 정신적인 동요를 경험하게 된다.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 아동은 집, 음식 등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을 자기 혼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 이미지를 공포감으로 갖게 되고, 초등 고학년 자녀는 함께 사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은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며, 수면장애, 식욕부진, 두통이나 복통 등의 신체화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더욱이 십대의 자녀는 상실감이나 슬픈 감정을 가족과 공유할 수 없으므로 분노, 죄의식 등의 정서적 혼란으로 인해 도벽 등의 반항적 태도나 극단적인 퇴행행동을 하는 등 진짜 내면의 감정은 숨긴 채 가면을 쓴 것 같은 다른 유형의 행동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2010). 이와 같이 부모의 이혼을 직면하는 상황에서 연령에 따라 아동은 두려움과 함께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각기 다른 문제행동을 드러낸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적용된 모래놀이치료 사례를 보면, 이미숙과 박부진(2011)의 연구에서 만 4세~12세 아동 139명(총 2,571개의 모래상자)에게서 드러난 상징의 주요내용이 아동 전·후기로 나뉘어 거론되어졌다. 아동전기 남아는 “일반차량”과 “공사차량”을 활용하여 무의식과 의식을 넘나들면서 통제와 해방, 탈출에 대한 욕구를 나타냈고, 여아는 장, 소파, 집을 활용해서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성을 통한 양육경험을 나타냈다. 아동후기 남아가 “경찰, 군인, 기사”를 사용해 투쟁과 책임에 집중했다면, 여아는 “집, 다리, 가구”를 이용해 더 깊은 양육적인 측면과의 연계성을 드러냈다(이미숙, 박부진, 2011). 즉, 남아의 경우는 역동적이며 외향적인 남성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을 사용하여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특징이 두드러졌고, 여아의 경우는 정서적 민감성과 내향적인 여성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활용해 양육적이며, 관계지향적인 경험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이들 연구에서 비교된 것처럼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상징은 생애 발달과정 과업과 연결되며 좀 더 분화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 각각의 연령별 발달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이혼가정 자녀의 상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연령별·성별로 두드러지는 상징에 주목해서 관찰하고자 한다.

모래놀이치료의 자유롭고 보호받는 특징은 내담자로 하여금 모든 성장과 발달이 시작되는 초기 심리적 조건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든다(Kalff, 2003). 또한, 모든 모래놀이 과정이 발

달의 전 과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많은 모래놀이 작업은 단지 전체 발달과정의 파편과 일부분만을 설명하지만(Neumann, 1973), 모래놀이치료의 연금술적 내향화 방식은 모래와 피겨·놀이 등의 상징에 인간 정신 내면을 투사하여, 안전하고 보호적인 컨테이너 안에서 인간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준다(von Franz, 1997). 즉, 모래놀이치료 이론가들은 모래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퇴행은 성장과 발달이 시작되는 초기단계로 내담자를 이끌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준다는 동일한 주장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모래놀이 상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징은 ‘동일성’과 같은 뜻으로, 사전적 의미는 ‘생각을 사물이나 기호로 대체하는 일’을 말한다. 상징에는 모든 자연물이나 인간이 만든 도구, 그리고 행동의 규범이 스며있고, 합리적·과학적 접근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의미가 심연에 내재되어 있다(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2). 상징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며, 치유적이고 에너지-변화적인 힘을 가지고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한다(장미경, 2017).

모래놀이치료에서의 피겨들은 서로 간 대극적인 것을 연결하는 상징으로써 작용한다.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 내담자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깨어나고 신경증적으로 고착된 에너지는 해방되며,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통로로 이동시켜서 보다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유연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치유가 임하게 된다(Weinrib, 2004).

특별히 애착의 어려움이 있는 이혼가정 아동에게 모래놀이치료는 비언어적이자 창조적·유희적 방식으로 초기 유아기의 상처 깊었던 내면의 층에 깊숙이 닿도록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매우 좋은 치료적 도구로써 사용되어 진다(김유선, 2017; 반평자, 우주영, 2013). 또한 모래놀이치료사는 이러한 애착의 어려움을 가진 내담아동을 위해 긍정적·협력적·상호 주관적 관계능력으로 안전하게 적응적 퇴행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Schore, 2019).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혼 가정 아동이 각기 다른 연령에서 모래놀이치료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상징도 각 연령과 성별 심리발달의 범위를 망라하거나 완결된 내용을 만들어 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혼가정 아동이 각기 다른 연령과 성에서 모래놀이치료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상징에 대한 고찰은 그것 자체로서 고유하고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2~4세 연령에 부모 이혼을 경험한 이혼가정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에 대해 연령별·성별로 분석해 보고, 치료 이후 행동 변화와 핵심 상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모의 이혼 이후 한부모가정으로 상담에 의뢰된 5명의 아동과 부모의 이혼 이후 조손가정으로 상담에 의뢰된 3명의 아동까지 총 8명의 만 7세~13세 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만 2세~4세인 생애 초기 중요한 발달시점에 부모가 이혼을 했으며, 5년 이상의 부모 이혼 이후의 시기를 겪었고, 각각의 아동은 서로 다른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및 방법

2019년에 E상담센터에 의뢰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8명의 아동에게 모래놀이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보호자에게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2019년 하반기까지 이들 아동에게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개별 모래놀이치료 회기를 제공하였으며, 각각의 개별 모래놀이치료는 40분씩 동일한 치료실에서 약 12회기 정도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 중에서 사례연구 방법은 수량적으로 내용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대상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회기 내에서 적용한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Stake(1995)의 반응적 평가에 따른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Stake(1995)의 반응적 평가는 사례에 대한 경험과 활동, 연구의 개념적 틀로서의 이슈, 간접적 경험과 맥락, 주관성, 다원성을 핵심적 관점으로 다루며 특히, 지금-여기에서의 대상의 인식을 통해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이해를 추구하여 집중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는데 매우 탁월한 연구방법이다. 또한 Yin(2003)의 분석방법에 따라 모래놀이치료에서 드러나는 피겨 간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여 기술하였다. Yin의 분석방법은 특정 사회 현상의 의미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기술해야 하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고 탁월한 연구방법이다.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표현되는 모래상자는 매회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첫 번째 상자는 출발선상에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및 내면의 자아상, 치유의 주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에너지와 내적 자원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므로, 상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참여 아동의 첫 상자를 중심으로 이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회기를 선정하였고, 두 상자의 상징을 비교·분석하여 고찰하였다(Weinrib, 2004).

분석을 위해 만 7세 아동은 아동 초기로 A, B, 만 9세 아동은 아동 중기로 C, D, 만 11세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구분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부모의 이혼 시점	연구 참여자 특성 및 내용
아동 초기	아동A	남	만 7세	5년 전 2세에 부모 이혼	출생 후 부모의 불화로 이모에게 맡겨졌으나 잘 보살펴지지 않았으며, 부모 이혼 후 부와 조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고, 불안, 강박, 미성숙, 충동통제가 어려움.
	아동B	남	만 7세	5년 전 2세에 부모 이혼	부모가 아이를 가져서 결혼하고 이혼 후 모자가정으로 지내다가 모의 편집증이 심해 정신과 입퇴원을 반복하자 현재 외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부와는 연락 안 함.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기타 소아기 정서 장애를 보이고 있음.
아동 중기	아동C	남	만 9세	7년 전 2세에 부모 이혼	부모 이혼 후 모가 양육, 모는 우울증 및 신체 건강 악화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두 번의 자살 경험이 있음. 부와는 연락 안 함. 정서상의 불안정과 학교거부 등의 문제를 보임.
	아동D	여	만 9세	7년 전 2세에 부모 이혼	부모가 아이를 가져서 결혼하고 이혼 후 모는 다시 유부남과 동거 후 헤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외조모가 거두어 양육하고, 외현적 행동문제가 심하게 나타남. 부와는 연락 안 함.
아동 후기	아동E	남	만 11세	8년 전 3세에 부모 이혼	부모 이혼 후 외조부모집에서 지내다가 5개월 전부터 모가 양육하고 있음. 부는 집이 가까워서 자주 들러서 만남. 형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심해서 가족의 초점이 형에게로 향한 후 아동의 외현적 반항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함.
	아동F	남	만 11세	8년 전 3세에 부모 이혼	부모 이혼 후 모와 함께 지내다가 모의 우울증으로 최근 부가 친권을 다시 가져오고, 부와 함께 지내고 있음. 아동의 내면에 불안이 심함.
청소년 초기	아동G	남	만 12세	8년 전 4세에 부모 이혼	부모 이혼 후 외조부모집에서 지내다가 5개월 전부터 모가 양육하고 있음. 유치원 때부터 예민하다가 점점 외현적 반항행동이 두드러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킴. 외조부모가 힘들어 함. 부는 자주 만남.
	아동H	여	만 13세	10년 전 3세에 부모 별거·이혼	부가 모보다 10살 연하로 10년 전 집을 나가 별거 시작 후 최근 이혼하였으며, 아동은 이 가운데 우울, 불안 등 내재적 정서문제를 보임. 부는 자주 만남.

아동은 아동 후기로 E, F, 그리고 만 12세~13세 아동은 청소년 초기로 G, H로 구분하였다. 이는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행동과 모래놀이에서의 상징을 드러낸다는 이론적 배경에 착안하여 구분한 것이다(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2010; 이미숙, 박부진, 2011). 각 회기 동안 연구 참여자들의 모래상자, 언어적 보고 및 행동분석을 위한 기록, 녹음 및 촬영 자료의 활용이 이루어졌다.

모래놀이 치료를 경험하고 실행하는 장소에서 내담아동이 작업을 진행하고, 연구자와 내담아동이 공동으로 내적체험에 집중하며, 이를 나누는 상호 경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성찰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철저한 현장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편견과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자료 분석을 나누었으며, 모래장면의 해석과 상징에 대해 이해하며 반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회기에 대해서는 슈퍼비전을 받았다. 이후 연구자는 관련 연구자들과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논의하고 반영하며 매 회기를 실천적으로 임하였다.

3.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심리치료 박사과정 수료생인 모래놀이치료 임상경력 12년 이상의 치료사이다. 질적 연구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사전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참여자가 언급했던 모래장면에 대한 이야기 및 행동관찰, 모래장면 사진의 다양한 측면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래놀이치료 전문가 1인에게 첫 상자, 중간 회기, 마지막 회기에 걸쳐서 전체 회기에 대한 집단 슈퍼비전을 받았다. 또한 해석의 타당성을 위해 관련 연구자 박사과정 2인(모래놀이 경력 12년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해석과 모래사진 분석에 동의를 받았다.

연구의 전체 과정 동안 슈퍼바이저 및 관련 연구자들과 세 차례에 걸쳐 전체 회기에 대해 논의하는 삼각 검증법과 동료검수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수정하고 보완하며, 비교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4. 연구 참여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사항

아동의 보호자에게 치료의 향상을 위해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 내용이 녹음 및 녹화, 촬영될 수 있으며, 녹음 및 녹화, 촬영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담에 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슈퍼비전 및 회의, 학술자료의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익명을 보장하며,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부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별칭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연구가 종료된 후 2년이 지나면 모든 자료는 일체 폐기 된다는 것과 연구가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 싶은 경우, 이에 대한 의사를 밝혀서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지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 초기(만 7세)의 부정적인 모성상

아동 A는 모래상자 속에 손을 넣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 주로 옆에 있는 뚜껑이 닫힌 모래상자 위에서 놀이를 하다가 이후 많은 회기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모래상자에서 손으로 모래를 접촉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아동은 “대왕 개구리”가 “호랑이”를 물거나 “대왕개구리”가 “사슴벌레”를 잡아먹는 첫 모래상자를 꾸몄다. 나쁜 부분이 선한 부분을 삼켜버리려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집어삼켜 죽음을 가져오는 삼키는 어머니상은 부정적 모성원형을 나타낸다(Ammann, 2009).



그림 1. 아동 A 1회기 모래장면과 10회기 모래장면

10회기의 상자에서는 다른 동물들을 물속에서 업어주거나 물 밖으로 보내주고, 코끼리와 대왕개구리가 서로 잘해서 악수하는 놀이, 거미의 독을 빼고, 상어랑 거미가 자는 공룡을 깨워서 치료하는 놀이로 점차 양육하고 치료하는 내용의 놀이로 바뀌었다.

아동 B는 요리를 하다가 “밥을 굽기고, 저녁밥은 없다!” 는 등의 표현으로 모래상자에서 성장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며, 차가운 측면을 가진 부정적 모성원형 에너지를 드러내는 첫 상자를 꾸몄다(Jung, 2002). 이후 7회기의 상자에서는 요리를 대접하고 생일파티를 하며, 먹을 것을 먹이는 등의 양육놀이로 전환되었다.

아동 A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부정적 모성원형에서의 여성적 그림자 측면으로부터 독을 빼고 자는 공룡을 깨워서 의식화 될 준비를 갖추고, 업어서 물 밖으로 나가는 무의식

속 깊은 내용을 밝은 세상으로 불러내는 양육적이며, 상징적인 놀이로 변화하게 되었다 (Kalff, 2010).

이후 아동 A의 초기의 충동통제 문제가 학교와 집에서 조금씩 조절되는 외부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 A가 최초의 접촉기억을 상기시키는 모래를 만지기까지 걸린 오랜 머뭇거림에서 치료사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까지의 긴장감을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비로소 치료실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익숙함과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모래상자의 내용에서는 부정적인 모성원형 에너지가 양육적인 내용으로 바뀌는 커다란 변화를 나타냈다.

아동 B는 모래놀이치료에서 먹이지 않고 가두는 어두운 자연 모성에서부터 시작해 삶을 살고 먹이는 즉, 운명적인 통합의 의미로 아니마와의 관계성을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였다 (Birkhäuser-Oeri, 2007).

이는 아동이 자신의 초기 유아기 단계로 돌아가 모성과의 초기 애착관계에서 상처 받았던 모습을 되풀이하는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재경험 놀이로 나타났다. 즉, 재경험 놀이 때마다 나타나는 모성상징과 이를 버텨주고 따뜻하게 수용해준 치료사와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치유와 양육놀이를 통한 변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작업이었다(Kalff, 2003). 이러한 치료사의 신체·정서·영적·관계적인 존재함은 내담자의 우뇌에 작용하여 내담자를 몰입과 확장된 인식으로 변화시키고, 치료사-내담자 간 정서적 소통이 이루어져 곧바로 치료로 연결되어진다(Schore, 2021).

이후 아동 B는 치료사와의 관계형성에서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편안해졌으며, 초기의 산만하던 모습에서 주의집중력이 나아지는 등 두 아동 모두 문제행동이 조금씩 완화되었다.



그림 2. 아동 B 1회기 모래장면과 7회기 모래장면

2. 아동 중기(만 9세)의 연금술적 정확과 변환

아동 C는 물을 섞어 단단하게 만든 모래를 펴서 담아 모양틀을 이용해 공들여서 토끼와

개구리 얼굴을 모래상자 위에 찍는 작업을 하였다. 정해진 틀 안에 찍는 놀이는 안정적 기반이 필요한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놀이유형이다. 이후에 “제사 지내줘야지~” 라고 말 하면서 하드스틱에 펜으로 이름을 적어 묘비처럼 세우고, 무덤처럼 언덕을 만들어 그 위에 스틱을 꽂아서 첫 상자를 표현했다.

6회기의 모래상자는 화로에 하드스틱을 넣어 활활 태우고, 모래를 끼얹어 덮어서 불을 끈 후 화로를 모래 안에 숨긴 다음, 그 위에 둥글게 모래 산을 만들어 “묘지”라고 명명했다. 모래놀이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태우고 죽이는 주제에서 연금술적인 변형의 상징과 지표를 볼 수 있다(Turner, 2009).

아동이 묘비로 꽂은 하드스틱에는 ‘토끼이’, ‘개순이’라고 적었다. 적어놓은 토끼와 개구리의 묘비명은 “토끼이”와 “개순이”로 대변되는 유아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미성숙한 어린 자기(Self)이다.

융은 “의식의 성장은 오로지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기존의 존재가 먼저 죽어서 그것의 이전 원리의 해체와 부패의 기간을 통과하지 않는 한, 더 나은 상태로 재탄생할 수 없다”고 했다(Jung, 1967/1983).

이후 아동은 빨간 화로 안에 하드스틱을 넣고 활활 태웠다. 이는 아직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심적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빨간 화로에서 불로 태운 이후 빨간 화로만 남은 상태에서 그것을 무덤처럼 덮은 후 다시 꺼내는 작업은 심리적 죽음 후에 빨강계



그림 3. 아동 C의 1회기 모래장면



그림 4. 아동 C의 6회기 모래장면

되는 즉, “새로운 의식”이 자리하는, 새롭고 더 넓어진 의식의 존재 방식이 생겨나는 것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다. 불은 활발하게 작용하는 정서성, 내면의 열기, 고통, 곤란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정화와 변환”을 의미하기도 한다(Ammann, 2009).

아동 C는 부정적 측면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어리고 미성숙한 것을 모래상자에서 태우고 죽이는 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래상자에서 장례를 의미하는 놀이를 함으로써 해체와 수용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변화를 놀이로써 구현하였다(Ammann, 2009).

이후 아동은 외부에서 조금씩 노력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행동상의 조절을 나타내는 변화를 보였다.

아동 D는 중앙에 둥근 언덕이 솟아 있고, 그 위에 남자와 소녀를 계속 묻었다가 찾아내는 작업을 하며, “사막”에서 모래바람에 묻혀있다는 표현을 했다. 텅 빈 우로보로스의 표현이다. “남자와 소녀”는 함께 살지 못하는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의 구성을 손상당한 경우, 모래놀이 과정에서 자기의 배열이 나타난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자기의 배열을 통해 초기 상실과 외상으로부터 삶의 질서와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며, 심리발달에서 자아 이전 단계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한다(Turner, 2009).

9회기에 아동은 상자 한쪽 구석에 욕조를 가져다 놓았고, 연꽃을 중앙에 놓고 그 위에 짱구를 올려놓으며, 짱구를 묻고 꺼내는 작업을 하다가 물동이를 든 소년과 소녀를 놓고, 조리개를 가져와 물을 뿌려서 비처럼 내리게 하였다. 목욕하며 욕조에 폭 잠겨있는 마르코 피겨도 그 옆에 두었다.

연꽃 위의 짱구는 유아적인 “Self”의 원형이고, 주변에 “물동이를 든 소년과 소녀”는 원형적 형상으로 나타나 있다. 물과 생명수, 흐르는 물은 흐르고 움직이는 것으로 인간에게 생동감을 부여하는 영혼의 에너지이다. 그 근원은 언제나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창조될 수 있는 무의식이며, 자기 안의 생명력의 근원을 발견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식하며 삶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행위이다(Ammann, 2009). 물을 뿌리는 세례의 주제에서 연금술 과정의 정화와 분리가 나타났고, 욕조에 잠겨있는 모습에서 무의식적·무정형적 상태로 퇴행하여, 의식의 발전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이 생겨났다(Ammann, 2009).

아동 D는 모래상자에서 물을 뿌리고 목욕하여 폭 잠기는 세례의식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의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Ammann, 2009).

이후 아동 D는 치료사와 더 가까운 관계맺음과 외부에서는 외현적인 행동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밝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 아동 D의 1회기 모래장면



그림 6. 아동 D의 9회기 모래장면

3. 아동 후기(만 11세)의 자기의 배열과 투쟁

아동 E는 모래상자 중심에 원형으로 왕 뱀이 나선형의 형태로 파리를 들고 있으면서 깃발을 들고 행복하듯 서있는 아들과 엄마, 아빠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첫 상자를 꾸몄다. 왕 뱀 안에 감겨져 있는 세 명의 가족은 언젠가 왕 뱀에게 잡아먹힌다고 하며, 아빠와 아들은 뱀 때문에 놀라고 있고, 짱구는 구경하며, 루피와 초파는 길을 가고 있고, 스머프들은 할로윈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선형은 미로와 비슷한 상징적 형상으로 특별히 입문식(initiation)에서 나선형 미로에 들어가서 상징적 죽음을 맞이하고, 상징적으로 다시 태어나 빠져나가야 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스머프들은 죽은 자들의 파티를 열고 있다.

입문식의 참가자는 어머니의 몸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가는 즉, 나선형은 자궁에 대한 상징이 된다(Ammann, 2009). 나선형이 향하는 방향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기(Self)의 영역이자 자기의 배열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 사이에서 행복하는 듯한 아동의 자기배열은 아동의 첫 모래상자 이후 10회기 상자에서 중앙에 둥근 언덕이 봉긋하게 솟아오르며, 분출하다가 눈에 덮인 “화산”과 가족이 살고 있는 “이글루”, 그곳에 살고 있는 펭귄 3형제와 막내 펭귄을 이글루에 넣었다가 빼는 반복하는 놀이를 내용으로 하는 모래상자로 이어졌다.



그림 7. 아동 E의 1회기 모래장면



그림 8. 아동 E의 10회기 모래장면

초기 상실과 외상으로 자기의 구성을 손상당하면 모래놀이에서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으로 삶의 질서와 의미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Turner, 2009).

아동은 초기 상자 이후 모래놀이를 통해 자기를 정돈하고 중심화하려는 자기배열의 시도를 하였다(Ammann, 2009). 아직은 이글루 속의 보호받아야 하는 막내 펭귄의 상징으로 아동 내면의 छ게 열어 있는 상처 입고, 정서적으로 손상당한 자기(Self)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아동 F는 첫 상자에서 모성 영역과 부성 영역 간의 전투로 대치상황을 꾸몄으며, 군인과 원형적 동물과의 상징적인 대비를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로 드러냈다.

Kalff(2003)는 남자 아동에게서는 의식발달 단계의 상징적 심상이 특별히 전투의 특징을 띠고 나타난다고 하였다. 모래상자에서 의식 출현의 단계는 대립되는 위치에서 서로 직면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심리발달의 이 시점에서 자아는 무의식의 어머니 에너지로부터 분리된다.

자아는 성장하는 자율적인 심리적 실체로 기능하면서 남성적인 의식적 에너지와 동일시하게 되며, 이것은 여성성과 남성성, 어둠과 빛과 같은 대극적인 조건을 만들어 낸다. 대립하는 두 개의 투쟁하는 대극은 어두운 특징을 지닌 심상과 맞서는 밝은 특징을 지닌 심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9회기의 극적인 상자는 모성 영역에서 화산의 분출로 인해 나머지 영역에 있는 공룡들이 불에 타서 다 죽게 되는 상황으로 연출되었다. 실제로 아동의 모는 우울증이 심하고, 혼자 있거나 마음이 힘들 때 극심한 음주문제를 보이는데, 병원에서 처방도 해주었지만 의지가 약해서 아동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아동에게 불안을 가중시켰다.

모래상자에서는 모성에서 분리된 건강한 아동의 자아가 남성적 에너지와 동일시된 자아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의 모래상자의 모성영역에서 분출한 화산의 용암이 공룡들을 다 죽여서 아동의 심리적 고통이 강하게 표출되는 놀이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9. 아동 F의 1회기 모래장면



그림 10. 아동 F의 9회기 모래장면

삶의 건강한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동의 힘과 투쟁이 분노의 거센 표출과 같은 정점으로 치닫는 놀이로 재현되어 나타난 것이다. 삶의 건강한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상처와 고착(Neumann, 1973)을 견디기 위해 치료사가 지지하는 가운데 아동은 모래상자에서 이를 표현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외부에서는 아동의 부(父)가 아동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서 함께 아동과 축구로 운동하고 소통하며 아동의 정신·신체적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도움을 주었다.

두 아동은 자기의 배열을 통한 중심화의 시도와 모성으로의 분리를 위한 투쟁을 모래상자 안에서 표현하였다. 그리고 난 후, 치료사와 점점 더 편안하고 가까운 관계맺음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외부에서는 외현화된 반항행동이 조금씩 조절되는 변화를 보였다.

4. 청소년 초기(만 12~13세)의 부성원형의 등장

아동 G는 첫 모래상자에서 중심에 언덕을 만들고, 십자가를 든 해골인간이 “죽음의 사신”이며, 사람들의 수명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죽음의 사신 주변에는 초를 놓고 초가 녹으면 사람이 죽고, 초는 외부에서 끄면 안 되고 운명처럼 꺼져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끄면 균형이 깨지고 운명이 바뀌고 망하는 거라고 말했다.

죽음은 모래상자 안에서 무엇인가가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힘과 권위를 가진 대지적 아버지(earth father)는 대지의 순환적인 생명력에서 힘을 끌어오며, 삶과 죽음의 주기를 관장한다. 또한 판사·지혜로운 남자로 대변되는 부성원형의 인격화는 법과 질서와 관련되어 나타난다(Edinger, 1972).

아동의 모래상자 중심에 있는 죽음의 사신은 자신의 고유한 힘을 찾기 위해 모성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부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힘으로 대변되는 부성원형의 동일시 상징으로 나타났다(Edinger, 1972).



그림 11. 아동 G의 1회기 모래장면



그림 12. 아동 G의 10회기 모래장면

10회기의 모래상자에서 아동은 우물에서 물을 떠야 살 수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으로 “적응”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맞이한다. 우물은 아래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욱 깊은 곳에 있는 것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다(Turner, 2009). 또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작업은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무의식 속 깊은 내용을 밝은 세상으로 불러내는 행위이다(Kalff, 2010).

아동 G는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초기에는 무의식에 억압했던 힘든 마음을 표현했고, 이후 점차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집단에 적응하는 성장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Kalff, 2010).

아동 H는 얼굴을 외면한 부엉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펭귄과 그 사이에 앉아있는 흑인 남자아이를 첫 상자 꾸밈다. 외면하고 있는 모성성을 노려보는 듯한 펭귄 아빠의 모습은 아동의 “아빠가 나를 안 키우니까 엄마가 참고 키워서(엄마가) 더 바보 같다~!” 라는 말로 강조된다.

9회기의 모래상자는 헬리콥터를 타고 좌측으로 날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현재 엄마와 살고 있는 아동은 경제적 어려움과 엄마와의 잦은 충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동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아빠의 영향력 안에서 공부를 지원 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다. 아동은 “공주놀이 하고 싶고, 아빠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는데, 아빠가 그럼 살아!” 라고 말했다며 실제로 좋아했다. 아동의 아버지는 성품이 부드럽고 아동에게 입시에 관계되는 조언과 경제적 도움을 주며, 한 주에 한 번씩 아동을 만나고 있다.

첫 모래상자에 나타난 펭귄은 양육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잘 돌보는 상징이다. 실제로 수컷 펭귄은 알이 부화하고 짝이 돌아올 때까지 약 115일 동안 단식하는 매우 대단한 양육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의 모래상자에 나타난 헬리콥터를 타고 자기 내면으로의 여정, 즉 집단무의식에서의 여행을 떠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내면으로 향하는 상징으로써 의미심

장하다.

모래상자에서 출현한 아버지 역시 어머니만큼 강한 ‘부모정신’으로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다. 부성원형적 이미지가 두 아동의 모래장면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배열된 그리고 치료사와의 관계맺음의 재경험을 통해 배열된 건강한 부성원형적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청소년 초기 아동의 모권에 대한 의존이 극복되고, 부권적 세계로 이동하는 ‘남성적 의식성’의 발달이 드러나는 건강한 발달 과정의 지속을 볼 수 있다(장미경, 2017).



그림 13. 아동 H의 1회기 모래장면



그림 14. 아동 H의 9회기 모래장면

이들 아동의 모래놀이에서의 변화는 부성원형이 질서를 잡으려 하고, 양육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에너지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외부에서는 외현적 반항행동이 조절되기 시작했고, 우울·불안의 내재적 정서문제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혼가정 아동에게서 수집된 자료는 Stake(1995)의 자료 분석과 해석의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 과정을 통해서 4개의 상위주제와 6단락의 하위 상징 요소(치료 초기와 치료 후 변화)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상위주제와 하위 상징 요소는 표 2와 같다.

이혼가정 아동의 모래놀이치료에서 의미의 상위주제 4가지는 ‘부정적인 모성상’, ‘연금술적 정화와 변환’, ‘자기(self)의 배열과 투쟁’, ‘부성원형의 등장’이다.

모래놀이치료 초기의 연령별 상징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아동 초기(7세): 대왕개구리가 호랑이·사슴벌레를 잡아먹음, 요리하며 밥을 굽김.
- ▶ 아동 중기(9세): 모래로 개구리·토끼 틀을 찍음, 무덤 만들어 묘비 세움, 언덕 위에 남자와 소녀를 묻음, 사막에 모래 바람에 묻혀있음.
- ▶ 아동 후기(11세): 왕 뱀이 나선형으로 가족들을 감싸고 위협함, 깃발 든 심슨 가족, 루피와 초파는 길을 떠남, 스머프들은 할로윈 파티를 함, 군인과 원형적 동물과의 전투로 대치.

표 2. 의미 분석의 상위 주제와 하위 상징 요소

대상 성별	연령별 상위주제	하위 상징 요소		
		치료 초기	치료 후 변화	성별 변화
A 남	아동 초기 만 7세 / “부정적인 모성상”	대왕개구리가 호랑이· 사슴벌레를 잡아먹음	거미의 독을 빼냄. 자는 공 룡을 깨움. 업고 물 밖으로 나감. 치료함	삼킴에서 치료·양육
B 남		요리하며 밥을 굽김	요리, 생일파티 등 양육 놀 이함	감금에서 양육·돌봄
C 남	아동 중기 만 9세 / “연금술적 정화와 변환”	모래로 개구리·토끼 틀 찍음. 무덤 만들어 개구리·토끼 묘비 세움	화로에 개구리·토끼 묘비 를 태우고 장례놀이를 계 속함	자기의 출현에서 죽음의 의식
D 여		언덕 위에 남자와 소녀 문음. 사막에 모래 바람에 묻혀있음	연꽃 위에 쟁구를 놓고, 물동이 든 소년과 소녀 위 에 조리개로 물 뿌림. 목욕 하는 마르코 피겨 등 세례 의식 놀이함	고립된 부화의 시간에서 정서적·관계 중심적 깊은 갈등에서의 해소·정화. 빠른 적응의 과정이 나타 남
E 남	아동 후기 만 11세 / “자기(self)의 배열과 투쟁”	왕뱀이 나선형으로 가족들 을 감싸고 위협함. 깃발 든 심슨 가족. 루피와 초파는 길을 떠남. 스머프들은 할로윈 파티를 함	화산이 분출, 눈에 덮인 이글루에 살고 있는 펭귄 3형제와 보호받는 막내 펭귄, 중심화하는 자기배열	자기의 배열과 상징적 죽 음. 죽은 자들의 기념식에 서 춤고 보살핌 받는 상징
F 남		군인과 원형적 동물과의 전투로 대치	모성 영역에서 화산의 분출로 나머지 영역의 공룡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 분노의 표출과 같은 감정표출 높이	전투·투쟁에서 모성영역 내 분노의 표출
G 남	청소년 초기 만 12세~ 만 13세 / “부성원형의 등장”	십자가를 든 해골인간이 “죽음의 사신”, 사람들의 수명을 관리	우물에서 물을 떠야 살 수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내용	죽음의 사신이 법과 질서 를 관장하는 것에서 마을 에서의 적응
H 여		부영이를 정면으로 바라 보고 있는 펭귄과 그 사이 에 앉아있는 흑인남자아이. 돌봄을 받아야 했던 어린 시절 광경	쟁구가 헬리콥터를 타고 좌측으로 날아가는 모습. 아이들의 휴식놀이 광경	차갑고 냉정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양육과 삶의 질 을 높여주는 따뜻한 에너 지로 부성원형이 새롭게 등장

- ▶ 청소년 초기(12~13세): 십자가를 든 해골인간이 죽음의 사신으로 사람들의 수명을 관리, 부영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펭귄과 그 사이에 앉아 있는 흑인 남자아이, 돌봄을 받아야 했던 어린 시절 광경.

이를 정리해 보면, 모래놀이치료 초기의 연령별 상징 요소는 아동 초기(7세)는 모-아 단 일체에서의 위협, 방치이고, 아동 중기(9세)는 안정적 기반이 필요한 불안정, 숨김, 간힘이며, 아동 후기(11세)는 위협, 포위, 대치와 여정이고, 청소년 초기(12~13세)는 생기 없음, 대치, 방치이다. 초기 상징은 상처의 테마들이 주요 상징으로 나타났다.

모래놀이치료 후기의 연령별 상징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아동 초기(7세): 거미의 독을 빼냄, 자는 공룡을 깨우고 엮어서 물 밖으로 나감, 치료함, 요리, 생일파티 등의 양육 놀이 함.
- ▶ 아동 중기(9세): 화로에 묘비를 태우고 장례놀이 함, 연꽃 위에 짱구를 놓고, 물둥이 든 소년과 소녀 위에 조리개로 물을 뿌림, 목욕하는 마르코 피겨 등 세례 의식 놀이 함.
- ▶ 아동 후기(11세): 화산 분출, 눈에 덮인 이글루에 살고 있는 펭귄 3형제와 보호받는 막내 펭귄, 중시화하는 자기의 배열, 모성 영역 내 화산의 분출로 나머지 영역의 공룡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 표현, 분노의 표출과 같은 감정표출 놀이 함.
- ▶ 청소년 초기(12~13세): 우물에서 물을 떠야 살 수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적응적으로 살아감, 짱구가 헬리콥터를 타고 우측 어머니 영역에서 좌측 아버지 영역으로 날아가는 모습, 아기들의 휴식놀이 광경.

이와 같이 모래놀이치료 후기의 연령별 상징 요소는 아동 초기(7세)는 치료·의식화·양육이고, 아동 중기(9세)는 창조·중앙·세척·세례이며, 아동 후기(11세)는 분노 표출·보호·중앙·쓰러뜨림이고, 청소년 초기(12~13세)는 조화·비행기 이륙·출산이다. 후기 상징은 치유의 테마들이 주요 상징으로 나타났다.

치료 초기와 치료 후에 드러나는 핵심 상징의 성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남아는 삼킴에서 치료·양육, 감금에서 양육·돌봄, 자기의 출현에서 죽음의 의식, 자기의 배열과 상징적 죽음, 죽은 자들의 기념식에서 보호, 전투·투쟁과 모성영역에서의 분노 표출, 죽음의 사신이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것에서 마을에서의 적응이 나타났다.

반면, 여아는 고립된 곳에서 부화의 시간 속 정서적·중심적 관계육구, 차갑고 냉정한 모성과의 관계에서 양육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따뜻한 에너지로 부성원형이 새롭게 등장하고, 빠른 적응의 과정과 깊은 갈등의 해소·정화가 나타났다.

여덟 명의 참여자 중 여아는 두 명뿐이어서 소수의 인원으로 성비에 무리가 있으나 남아는 치료 이후 미분화와 감금·투쟁, 지배에서 양육과 상징적 죽음 이후 집단에의 적응의 단계로 이르는 진행이 나타났다.

행동상의 변화는 충동통제 문제와 외현화된 반항행동이 학교와 집에서 조금씩 조절되고, 주의 집중력이 나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여아는 단절, 변화에서 갈등과 대립, 따뜻한 부성원형의 등장으로 빠른 적응과 갈등의 해소와 같은 관계 문제의 변화가 주로 나타났다.

행동상의 변화는 우울·불안의 내재적 정서 문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밝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2~4세 연령에 부모 이혼을 경험한 이혼가정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에 대해 연령별·성별로 분석해 보고, 치료 이후 행동 변화와 핵심 상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모래놀이치료 상위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 중 아동 초기(만 7세: 남) 연령에서 드러난 모래놀이 상징은 ‘부정적인 모성상징’이었다. “대왕 개구리”가 “호랑이”를 잡아먹거나 “대왕개구리”가 “사슴벌레”를 잡아먹는 즉, 나쁜 부분이 선한 부분을 집어삼켜 죽음을 가져오는 삼키는 어머니상과 “밥을 굶기고, 저녁밥은 없다!”는 등의 성장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며, 차가운 측면을 가진 부정적 모성원형이 드러났다.

이들 남자 아동은 모두 초기 양육에 있어서 양육자가 계속 바뀌고, 조부모와 지내고 있는 불안정한 양육경험을 가진 아동이다.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상을 재경험하는 초기 모래놀이에서의 상징은 관계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성상징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영주, 이정숙, 2019). 이 연구에서의 부정적 모성상징은 대지의 요소인 “흙이 잡아먹는다.”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

이혼가정 아동 중 아동 초기 연령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의 상징은 Jung의 개성화 과정에 기초한 Weinrib(2004)의 모래놀이 과정에서의 첫 번째 단계인 주요 콤플렉스의 부분적 해결단계의 과업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의 영향을 받은 이혼가정 아동 중 만 7세의 남자 아동은 어머니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건강한 분리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모래상자에서 부정적 경험을 놀이로 재경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혼가정 아동 중 아동 중기(만 9세: 남, 녀) 연령에서 드러난 모래놀이 상징은 ‘연금술적 정화와 변환’이었다. “토끼와 개구리”로 대변되는 유아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함을 아동은 빨간 화로 안에서 태웠다. 또한 심적 죽음을 맞이하는 상징과 연꽃 위의 짚구로 대변되는 유아적인 “나”의 원형 주변에 “물둥이를 든 소년과 소녀”와 “육조”에 폭 잠겨 있는 마르코의 상징으로 세례의 주제에서 연금술 과정의 정화와 분리를 통한 의식의 발전

으로 상대적인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Ammann, 2009).

이러한 결과는 전지현(2017)의 연구에서 애착으로 인해 불안 및 우울의 정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 모래상자에서 죽음과 물을 통한 재탄생을 맞이하여 부정적인 모성성을 극복해 나가는 결과와 맥락 면에서 유사하다. 실제로 아동 중기 연령의 아동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또래집단의 판단과 또래 관계에서 서로에게 모욕을 가하고 괴롭힐 때 예민한 아동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 아동 중 만 9세 아동 C의 초기에 드러났던 학교거부의 문제행동도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정옥분, 2013). 또한, 김려정(2019)의 연구에서 부모 부재로 인한 상처를 초기에는 모래바람이 부는 “재난 상황”으로 표현하였고, 후기에 이르러 “모래 비”가 내리는 치유상황으로 표현한 내용은 아동 D의 치료 초기에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묻혀있었던 소녀와 남자가 치료 후기에 물을 뿌려 마치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세례의식 놀이를 하는 장면으로 바뀐 것과 유사하다. 이는 무의식의 깊은 갈등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있다가 세례의식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어 자신을 해방시키는 “재탄생”을 맞이하는 내용과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심리학적 상징에서 ‘죽음’이란 의식적 죽음, 즉, 구체적으로 의식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 심리적인 죽음 후에 새로운 의식이 자리하는 것, 새롭고 더 밝고, 더 넓어진 의식의 존재방식이 생겨나게 된다. 자기 안의 것을 재배열하고, 낡은 정신구조를 해체하여 이전의 나와 다른 재탄생을 하는 이전의 나와 다른 “나”가 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Ammann, 2009).

이혼가정 아동 중 아동 중기(만 9세: 남, 녀)에서 나타나는 ‘연금술적 정화와 변환’을 나타내는 상징은 아동 중기의 또래와의 관계맺음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발달의 쟁점에 발맞추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연적인 발달과제로도 볼 수 있다.

셋째, 이혼가정 아동 중 아동 후기(만 11세: 남) 연령에서 드러난 모래놀이 상징은 ‘자기의 배열과 투쟁’이었다. 가족을 감고 있는 “나선형의 뱀”의 상징과 전투하는 양극의 “투쟁”의 상징은 어두운 특징을 지닌 심상과 맞서는 밝은 특징을 지닌 심상이 나타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 가야 하는 발달과업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에게서 나타난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망설이다가 피겨를 다시 뺀다, 집어 넣었다를 반복하는 행동과 유사하며(김유선, 2017), 애착으로 인해 불안 및 우울의 정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물을 사용하여 자궁으로 퇴행하며, 이글루에 넣었다 빼는 즉, 아동이 자궁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반복하는 의미, 더 크게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는 것으로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전지현, 2017).

초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기의 구성을 손상당하면 모래놀이 과정에서 자기의 배열이 나타난다. 아동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자기의 배열을 통해 초기 상실과 외상으로부터 삶의

질서와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며, 심리발달과정에서 자아 이전 단계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한다(Turner, 2009).

가족을 감고 있는 “나선형의 뱀”에서 나타나는 원은 보편적인 상징으로서 전체성·완전성·동시성·원초의 완전함을 뜻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신성한 모양을 의미한다. 태양으로서는 남성적인 힘을 뜻하지만 영혼이나 마음으로서, 또는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로서 어머니의 여성 원리이자 시작과 끝을 알리는 “우로보로스”의 의미이다(이영숙, 2017).

이혼가정 남자 아동 중 만 11세의 연령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배열과 투쟁’을 나타내는 상징은 Jung의 개성화 과정에 기초한 Weinrib(2004)의 모래놀이 과정에서의 첫 번째 단계인 ‘주요 콤플렉스의 부분적 해결 단계’를 지나 두 번째 단계인 ‘전체성에 대한 중심 원형의 표현’ 혹은 ‘자기 배열의 단계’에 다다르고자 시도하는 아동의 분투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화산이 분출하고 공룡들이 다 죽게 되는 어머니를 향한 분노 표출 상황을 나타낸 아동 F의 놀이 상징도 마찬가지로 화산이라는 상징을 통해 부모 별거 아동이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깊은 내면의 분노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고 나서야 진정한 자신과 비로소 접촉할 수 있었던 김유선(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다.

넷째, 이혼가정 아동 중 청소년 초기 연령(만 12~13세: 남, 녀)에게서 드러난 모래놀이 상징은 ‘부성원형의 등장’이다. 십자가를 든 법과 질서로 대변되는 “죽음의 사신”과, 부영이를 노려보고 있는 보호적인 아버지(Great Protective Father)인 “펭귄 아빠”로 부성 원형적 상징이 나타났다.

음은 반대 성의 타자는 발달의 강력한 정서적 결정 요소라고 했으며, 이 단계에 간혀있는 소녀 혹은 여성은 팽창되어서 그녀 자신을 신성한 아버지의 파트너로 상상하거나 심지어 어머니에 대해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Weinberg, 2011).

본 연구에서의 이혼가정 아동 중 H아동의 부와 살고 싶어 하는 욕구도 심리 내적으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애(2010)의 불안한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에서 강하면서도 평화로운 추장이 새로운 아니무스 피겨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내담자가 어머니에게 속해있는 소녀에서 분리하여 여성으로 성장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즉, 청소년 초기 아동의 모권에 대한 의존이 극복되고, 부권적 세계로 이동하는 남성적 의식성의 발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장미경, 2017).

이혼가정 아동 중 청소년 초기 연령인 만 12세~13세에 해당하는 남·녀 아동에게서 드러난 모래놀이 상징은 외부세계와 의식세계, 통찰 등을 상징하며, 외부 세계, 의식세계로 안내하는 존재로서의 ‘부성 원형의 출현’으로 노이만의 정신 발달단계에서 자아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아버지의 세계, 즉 태양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모래놀이치료 초기의 연령별 상징 요소는 다음과 같다.

아동 초기(7세)는 모-아 단일체에서의 위협과 방임, 아동 중기(9세)는 안정적 기반이 필요한 불안정 · 숨김 · 간힘, 아동 후기(11세)는 위협과 포위 · 대치 · 여정, 청소년 초기(12~13세)는 생기 없음과 대치 · 방임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래놀이치료 초기의 연령별 상징은 상처의 테마들이 주요 상징 요소로 나타났다. Michell과 Friedman에 의하면 상처의 주제는 트라우마 또는 가족원의 상실 등을 경험한 내담자의 치료 초기 단계에 주로 많이 출현한다고 한다(Michell & Friedman, 2009).

본 연구에서 모래놀이치료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협과 방임, 불안정 · 숨김 · 간힘 · 포위 · 대치 · 생기 없음과 같은 상처의 주제들은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2~4세 연령에 부모 이혼을 경험한 이혼가정 아동의 트라우마로 인해 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모래놀이치료 후기의 연령별 상징 요소는 다음과 같다.

아동 초기(7세)는 치료 · 의식화 · 양육, 아동 중기(9세)는 창조 · 중앙 · 세척 · 세례, 아동 후기(11세)는 분노 표출 · 보호 · 중앙 · 쓰러뜨림, 청소년 초기(12~13세)는 조화 · 비행기 이륙 · 출산이 나타났다.

이처럼 모래놀이치료 후기의 연령별 상징은 치유의 테마들이 주요 상징으로 나타났다. 치유의 주제는 생애 초기에 주로 경미한 수준의 외상을 경험하거나 건강한 내담자에게서 표현되며, 치료 과정의 후기에 많이 출현한다고 한다(Michell & Friedman, 2009).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후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식화 · 보호 · 양육 · 치료 · 중앙 · 세척 · 세례 · 창조 · 조화 · 비행기 이륙 · 출산과 같은 치유의 주제들은 김선숙과 김기현(2016)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모래놀이치료 과정이 진행되며 내담자는 성장하고 진보하면서 각각의 모래놀이 내용에서의 상징요소들이 더욱 확장되고 풍부하게 펼쳐지며,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래놀이치료 초기와 치료 후에 드러나는 핵심 상징에서의 성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는 삼킴에서 치료 · 양육, 감금에서 양육 · 돌봄, 자기의 출현에서 죽음의 의식, 자기의 배열에서 상징적 죽음, 죽은 자들의 기념식에서 보호, 전투 · 투쟁에서 모성영역 내 분노 표출, 죽음의 사신이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것에서 마을에서의 적응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여아는 고립된 곳에서 부화의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 중심적 관계육구를 향하고, 차갑고 냉정한 모성과의 관계에서 양육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따뜻한 에너지로 부성원형이 새롭게 등장하며, 빠른 적응의 과정과 깊은 갈등의 해소 · 정화가 나타났다.

여덟 명의 참여자 중 여아는 두 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서 인해 성별 비교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에 드러나는 핵심 상징의 차이에서 남아는 치료

이후 미분화와 감금·투쟁·지배에서 양육과 상징적 죽음 이후 집단에의 적응의 단계로 이르는 진행이 나타났고, 여아는 단절·변화에서 갈등과 대립·따뜻한 부성원형의 등장으로 빠른 적응과 갈등의 해소와 같은 관계 문제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명시적 대상을 상대로 전투·싸움·감금·침략 등 직접적 투쟁을 나타내는 반면, 여아의 경우는 갈등·고립·탈출 등 간접적 표현으로의 투쟁을 나타냈던 이의철과 김선희(2011)의 모래놀이를 통한 아동의 자아 발달단계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 남아는 남아다운 행동으로 다른 아이들을 지배하기 위한 신체적인 형태의 적대적 공격성과 관계되는 상징을 많이 나타냈고, 여아는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형태의 상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모래놀이치료 이후 행동상의 변화에서 성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남아는 충동통제 문제와 반항행동이 학교와 집에서 조금씩 조절되었고, 주의 집중력이 나아지는 행동에서의 외현화된 변화를 주로 나타내 보였다.

이는 정서불안 아동과 주의력 결핍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연구(김선숙, 김기현, 2016)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지닌 9세 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김경남, 2011)에서 아동의 비행과 공격행동 및 충동조절이 치료 이후 완화된 결과로도 증명되어 졌다.

반면, 여아는 우울·불안의 정서 문제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내재적 모습에서의 변화와 외현적 반항행동에서 밝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되는 행동 상에서의 조절이 나타났다.

이는 모래놀이를 통한 아동의 자아발달단계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이의철, 김선희, 2011)에서 모래놀이 치료 이후 내재된 여성성의 성장으로 나아가고, 관계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는 변화가 드러난 결과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혼가정 아동은 자아 발달을 이루기 위해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상징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재경험하며, 주요 콤플렉스를 극복하였다. 또한 치료사의 지지를 받으며 정신의 구조를 해체하고, 자기의 배열에 다다르고자 분투하며,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드러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혼가정 자녀 8명을 대상으로 소수의 연구 참여자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본 연구 결과로 모든 이혼가정 아동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이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상징의 변화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이혼가정 아동 중 떨어져 있는 한쪽의 부모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고 연락이 끊긴 자녀에 대한 주도면밀한 고려가 없었으므로, 추후에 이를 보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의 이혼가정 부모 역시 이혼이라는 인생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으므로,

추후 후속 연구로써 이혼한 부모 관점에서의 모래놀이치료 경험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이혼가정 자녀 중 남·녀 비율의 적절한 성비와 실험집단의 배치, 적절한 인원수 및 연령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발달상에서의 다양한 상징의 비교 분석을 통한 연령별·성별 연구를 지속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연구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2~4세 연령에 부모 이혼을 경험한 이혼가정 아동에게 개별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연령별·성별 상징 요소와 모래놀이치료 이후의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핵심 상징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상징이 상처주제에서 치료주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래놀이치료는 이혼가정 아동의 두 개의 분리된 세계에서의 혼돈과 상처받은 아픔이 치료과정에서 치유되고, 상징을 통해 관계를 재경험하며, 정신적 구조를 해체하고, 자기 배열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장을 보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숙, 김민녀, 김수지, 김영애, 배애련, 송미강, 신윤성, 유명은, 유지현, 윤선자, 이경미, 이동희, 이명진, 이숙영, 이영민, 이유경, 이정미, 장창국, 전성혜, 최조은, 최형선, 최효주, 한상화 (2018). 가사재판 사례와 상담 지침을 담은 책.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김경남 (2011).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지닌 9세 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2(1), 29-53.
- 김려정 (2019). 모래놀이 치료가 중국 조선족, 한부모가정 아동의 외로움,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 김기현 (2016). 정서불안 아동과 주의력 결핍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표현된 상처와 치유 주제에 대한 분석. 가족과 환경연구, 54(6), 631-642.
- 김유선 (2017). 중국 조선족 부모 별거 아동과 부모 동거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이야기 표현과 상징성 표현 비교.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2010). 이혼가정의 아동. 서울: 학지사(이너북스).
- 반평자, 우주영 (2013).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가정해체위기 아동의 비행과 공격행동 변화 및

- 내용주제 분석. 재활심리연구, 20(1), 65-100.
- 심희옥 (2011). 모래놀이 치료로 여성성을 회복해 가는 이혼가정의 초등학교 5학년 여아에 대한 사례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1), 55-65.
- 이미숙, 박부진 (2011).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모래놀이치료 상징물 사용. 놀이치료연구, 15(1), 29-42.
- 이미애 (2010). 불안한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1), 41-60.
- 이영숙 (2017). 영적 재탄생을 위한 역치의 상징: 죽음.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8(1), 49-65.
- 이영주, 이정숙 (2019). 관계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성상징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4(2), 77-96.
- 이의철, 김선희 (2011). 모래놀이를 통한 아동의 자아발달단계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모래놀이치료연구, 7(4), 23-56.
- 전지현 (2017). 애착으로 인해 불안 및 우울의 정서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연구. 아동가족치료연구, 16, 59-89.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13). 아동발달의 이해-개정판. 서울: 학지사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강신포, 김민기, 예용해, 유승국, 이규태, 이기문, 이기영, 이동환, 이어령, 이혜순, 임동권, 정양모, 황폐강)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1. 서울: 두산동아.
- Ammann, R. (2009). 융 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이유경 역. 서울: 분석심리학연구소.
- Birkhäuser-Oeri, S. (2007). 민담의 모성상. 이유경 역. 서울: 분석심리학연구소.
- Edinger, E. (1972). 자아발달과 원형. 장미경 역(2016). 서울: 학지사.
- Görtz, A. (2016). *Sandplay: therapy with a child of divorced parents. Living your own life.* New York: Routledge.
- Jung, C. G. (2002).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서 2권.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서울: 솔출판사.
- Jung, C. G. (1967/1983). *Paracelsus as a spiritual phenomena.* In C. G. Jung, *Alchemical studies* (2nd ed.). CW13, Bollingen Series XX.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lff, D. M. (2003).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Cloverdale, CA: Temenos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Kalff, D. M. (2010). *Sandspiel-Seine therapeutische Wirkung auf die psyche.* 이보섭 역(2012). 도라칼프의 모래놀이-융 심리학적 치유법. 서울: 학지사.
- Mitchell, R. R., & Friedman, H. S. (2009). Sandplay themes expressed in the healing process. *International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1-25.
- Neumann, E. (1973). *Amor and psyche: The psychic development of the feminine, a commentary on the tale by*

- Apuleius* (R. Manheim, Tra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53).
- Schore, A. N. (1991-2021). *Right brain affective processes operating at levels beneath conscious awareness are dominant in development, psychopathogenesis, and psychotherapy*. 2022년 2월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온라인 학술세미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애착외상의 재연과 치료자-내담자의 상호퇴행.
- Schore, A. N. (2019). *Right Brain Psychotherapy* (Norton Series on Interpersonal Neurobiology; Illustrated ed.). W.W. Norton & Company.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Turner, B. A. (2009).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김태련, 강우선, 김도연, 김은정, 김현정, 박랑규, 방희정, 신문자, 신민섭, 이계원, 이규미, 이정숙, 이종숙, 장은진, 조성원, 조숙자 공역. 서울: 학지사.
- Von, Franz, M-L. (1997). *Alchemical active imagination* (2nd ed.). Boston & London: Shambhala.
- Weinberg, B. (2010). *The elements of sandplay therapy*.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2010 동계 국제 워크숍 자료집.
- Weinberg, B. (2011). *The elements of sandplay therapy*.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2011 동계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 Weinrib, E. (2004). *Images of the self: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Cloverdale, CA: Temenos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Weinrib, E. (2010). *Images of the self*. Cloverdale, CA: Temenos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Birmingham: Thousand Oaks, CA: Sage.

투고일 : 2022. 03. 29
수정일 : 2022. 05. 13
게재확정일 : 2022. 05. 18

A Study on the Symbols in the Sandplay Therapy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by Age

Hong, Eun Joo^{*}

Kim, Hyo Eun^{**}

This study focused on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of 8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by age and analyzed these cases by applying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ccording to Stake's (1995) reactive evaluation. We found, first, among the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that the symbol revealed in the sandpictures of the youngest (7-year-old) children was a negative maternal symbol. Second, the symbol revealed in the sandpictures of the next oldest (9-year-old) children was alchemical purification and transformation. Third, the symbol revealed in the sandpictures of children at the end of childhood (11 years old) was self-arrangement and struggle. Fourth, the symbol revealed in the sandpictures of children aged 12 to 13, the early age of adolescents, was the appearance of the paternal circle. The results revealed the development of a masculine consciousness that overcame dependence on motherhood and transitioned into a patriarchal world. In this way, the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re-enactment relationships through symbols in the process of sandplay therapy to achieve self-development by age, deconstructing the mental structures, and reaching the stage of self-arrangement, revealing their progress toward growth.

Keywords : *symbol, sandplay therapy, child, divorced family, age*

* Lead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Studies, Eulj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Instructor, Department of Child Studies, Eulji University (khe4444@hanmail.net)

I . Introduction

Society today is accepting divorced families as just another form of ordinary family. There were times when there was a widespread belief that children are what connects married couples, and enduring and overcoming difficulties in marriage for the sake of children is a virtue. Such belief is changing, however, and people are increasingly accepting that it is better to provide an emotionally stable environment for children, even if it means that they may have to live in a single-parent household. As a matter of fact, divorced families are increasingly gaining attention as a media content; broadcasting companies are vying to launch programs on divorced families.

Divorce is no longer a social stigma. People are increasingly recognizing divorce as a way to enhance one's quality of life and charting one's own happiness. However, parents' divorce can bring a lasting mental trauma for the children. While the ones who are getting divorced, i.e., the parents, are ready for the separation, it can come as a big shock for the children. If parents do not take necessary measures against that shock, children may suffer from indelible wound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Parents therefore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issue of divorce, getting children involved in the process. If they do decide to get divorced, they ought to approach the issue of custody and access in a way that can minimize children's emotional problems.

Usually, parents become overwhelmed by their own stress in the process of divorce that they prioritize their own well-being over that of their children, and even sometimes break off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Kang et al., 201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ays to help promote the emotional stability of children after their parents' divorce in order to minimize the wounds and damages.

When children show problem behaviors after the divorce, they are often taken to therapists.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psychotherapy that uses imagination, which is innate to human beings, through meditation, dreams, images, fantasies, and sandpictures to communicate with the conscious (Weinberg, 2010). Sandplay therapy is one of these methods. When the energy in the human psyche is blocked and manifested in the form of psychosomatic symptoms, sandplay therapists provides a "free and protective space" that contains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personality, including intellectual and spiritual aspects, that allows the client's Self to become constellated and manifested (Jang, 2017).

Sandpicture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often show that these children live in two

separate worlds (Görtz, 2016). One parent's world is the good, whereas the other parent's world is the ba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therapist to provide to these children a "place of neutrality" within a protected space. The healing function of sandplay therapy help restore balance within children's split emotions, integrate ruptured aspects of the personality, and help reinforce the regulating function of the personality so as to bring recovery to everyday life (Sim, 2011).

An existing analysis of the sandplay process of a fifth-grade boy who experienced family disruption due to parental conflicts showed that the chaos he felt from his parents' quarrels, the breaking up of the family, and his father's authoritative and coercive attitude had a negative impact in his school life. He could not control his anger and acted out, rebelling against teachers, violating rules, and physically injuring his friends. Towards the end of his therapy process, a "deep ocean," the bottom of which was exposed, and a "spirit" symbol that blew away bad energy to the sea appeared, which indicated the creation of the new and integration towards growth and maturity (Ban & Woo, 2013). While the study confirmed that sandplay therapy has a positive treatment effect to alleviate children's delinquent behavior and aggression, the fact that there was only one participant and the findings therefore cannot be generalized remain as the study's limitation.

Another study compared symbols represented in the sandplay therapy processes of 20 Korean-Chinese children living in China who either lived together with their parents or separately. Sandpictures of children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often showed "babies and children" without the presence of parents or other adults, lonely-looking and isolated "houses" located in a remote, quiet place, and "strong animals attacking weak animals." They also often used negative words like "stabbing, killing, and fleeing" associated with swords and other weapons. Their own "deaths" were also represented through battles with monsters. Anger was also expressed through caves and volcanoes. After the deep inner feelings of anger, rejection, and shame that could not be communicated with others came to the surface and the process was iterated, the children were finally able to come in contact with the feeling of loneliness that they had felt (Kim, 2017).

Another study on sandplay therapy process of 48 Korean-Chinese children from single-parent homes found that initial sandpictures showed the followings: a "hospital" in which the wounding from the absence of a parent was treated, a "monster" attacking, an abducted "baby," and a

sandstorm “disaster” or a “war.” Towards the end of sandplay therapy, symbols of nurture and care appeared: “sand rain” came down, “houses” were constructed, “villages” were organized, people were fed, and order was restored. Communication was also shown in the form of discovering the “precious jewel that was lost” and paths being connected by a “bridge.” Symbols of transformation and growth were also present. The study showed that sandplay therapy brings positive therapeutic effect that enhances children’s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It also proved that sandplay therapy is effective in clearly observing the emotional changes in children from single-parent homes. However, the study is limited as that cultural context (i.e., the fact that the participants are Korean-Chinese children living in China) ought to have been considered to a greater extent so a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ymbols (Kim, 2019). In sum, symbols representing two divided worlds like sea and spirit, parentless baby and a lonely house, cave and volcano, sandstorm and sand rain, hospital and construction, and house and jewel appeared in sandpictures of children of divorced parents in an existing study.

This study thus focuses on symbols found in sandpictures of children who experienced parents’ divorce at the age of 2 to 4, at a time when they are developmentally sensitive, and classified those symbols according to their current age.

Parental conflicts before the actual divorce bring tension in the family, causing children to become frightened. When one of the parents abruptly leaves the house, children experience severe mental agitation. Young children and low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 concrete fear, e.g., that they need to provide for themselves the essentials for living such as food and housing. Upp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start behaving like adults out of the fear of being abandoned by their parents. They also experience somatization, such as sleep deprivation, loss of appetite, headache, and stomachache. Adolescents have a hard time sharing their feelings of loss and sadness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their felt anger, guilt, and other emotional turmoil lead them to display rebellious behavior, such as theft, or extreme regression. Their acting out appears as if they are wearing a mask, hiding their true inner feelings (Kim, Park, & Choi, 2010).

As described above, children who are confronted with their parents’ divorce experience various negative emotions along with fear and show different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age.

There are existing cases in which sandplay therapy was applied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gender. The study of Lee and Park (2011) examined symbols in a total of 2,571 sandpictures made by 139 children between the age of 4 and 12, and divided them into early

childhood group and late childhood group. Boys of the early childhood group used “general vehicles” and “construction vehicles” to move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and showed their desire for control, liberation, and escape. On the other hand, girls of the early childhood group used shelves, sofas, and houses to show their upbringing experiences through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outer environment. Boys of the late childhood group used “police officers, soldiers, and knights” to focus on struggle and responsibility, while girls of the late childhood group used “houses, bridges, and furnitures” to disclose a deeper connection to the nurturing aspect. The study showed that boys used masculine symbols that are dynamic and extroverted; their energy was mostly geared towards outside. On the other hand, girls often used feminine symbols that are emotionally sensitive and introverted, and their sandpictures showed nurture and relationship-oriented experiences.

As indicated in the studies mentioned above, symbols in sandplay therapy are linked to development tasks of children by their age and gender, and also showed more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age and gender. This suggests the need to identify symbols that are dominant in the sandplay proces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in relation to their age or their developmental stage. This study therefore pays attention to the symbols that are dominant by age and gender in the sandplay proces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free and protected nature of sandplay therapy allows clients to go back to their initial psychological conditions during which all growth and development begin (Kalff, 2003). Not all sandplay processes follow the entire process of development; in actuality, many sandplay works explain only fragments of the entire development process (Neumann, 1973). The alchemical, introverted process sandplay involves in the projection of human psyche onto symbols, i.e., sand, figures, play, etc., and enables the natural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to take place within the safe and protective container (von Franz, 1997). Theorists of sandplay therapy argue that the spontaneous regression taking place within the sand tray takes the client to the initial stage where growth and development begin and help healing to take place.

There is a need to focus on symbols in order to analyze clients' sandplay processes. Symbols have the same meaning as “identity.”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symbol is “the replacement of ideas with objects or signs.” Symbols permeate all natural objects, man-made tools, and behavioral norms, and are embedded with deep meanings that are difficult to comprehend with rational and scientific means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Dictionary of Korean Myths and

Symbols, 1992). Symbols occur spontaneously and connect consciousness to unconsciousness with its power to heal and transform energy (Jang, 2017).

In sandplay therapy, figures serve as symbols that connect the opposites. It is through these symbols that the client awakens from personal experiences, frees neurologically fixed energy, and moves it into creative channels, which brings healing that leads him/her to a more orderly, predictable and flexible life (Weinrib, 2004).

Sandplay therapy is helpful for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especially those with attachment difficulties. In a nonverbal, creative and playful way, sandplay therapy guides the client to get in touch with the deep inner layers where there is deep wounding associated with early infancy (Kim, 2017; Ban & Woo, 2013). The role of the sandplay therapist is to use his or her positive, collaborative, and interactive relationship capabilities to help adaptive regression to take place safely for these children (Schore, 2019).

Symbols in sandpicture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observed in this study will neither cover the entire scope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se children according to age and gender nor create a full picture. However, exploring symbol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of different age and gender can in itself be a unique and valuable work.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symbols appearing in sandplay processe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at the age of 2 to 4 by age and gender, and consider behavioral changes observed after therapy and the key symbols.

II. Research method

1. Participants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a total of 8 children aged 7 to 13 who experienced the divorce of their parents. 5 of them lived with one of the parents, and 3 with their grandparents. The parents got divorced when these children were 2-4 years old, a significant time in life in terms of development, which means that at least 5 years had passed since the experience at the time when they received therapy. Each child showed differen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able 1 outline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ach participant: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period	Participant	Gender	Age	Parents	Participant history and characteristic
Early childhood	Child A	M	7	5 years ago (aged 2)	He was left to his aunt's care right after birth due to conflict between his parents but was not well cared for. He began living with his father and paternal grandparents after the divorce. He has anxiety, obsession, prematurity, and impulse-control issues.
	Child B	M	7	5 years ago (aged 2)	His parents got married due to premarital pregnancy. The child had lived with his mother right after the divorce but later moved in with his grandparents as the mother frequently visited a psychiatrist. He ha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and other childhood emotional disorders.
Middle childhood	Child C	M	9	7 years ago (aged 2)	He has been living with his mother after his parents' divorce. The mother attempted suicide twice due to depression, physical health issu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The child is not in touch with the father. He experiences emotional instability and refuses to go to school.
	Child D	F	9	7 years ago (aged 2)	The parents' marriage was precipitated by pregnancy. After the divorce, the mother lived with a married man. After she parted from the man, she began receiving psychotherapy and the maternal grandmother took care of the child. The child shows severe overt behavioral problems. The father does not keep in touch.
Late childhood	Child E	M	11	8 years ago (aged 3)	He had been living with his maternal grandparents after the divorce, but has started living with his mother since five months ago. She meets her father often, who lives nearby. His older brother has some serious overt problem behaviors, which caused the family to pay attention to him, and that's when the child began to show overt disobedience.
	Child F	M	11	8 years ago (aged 3)	He had lived with his mother right after the parents' divorce. But his father obtained custody because of the mother's depression issue and now he is living with his father. The child shows severe inner anxiety.
Early adolescence	Child G	M	12	8 years ago (aged 4)	He had been living with his maternal grandparents after the divorce, but has started living with his mother since five months ago. He has displayed sensitive behaviors since kindergarten, but his overt disobedience became worse to the extent that he is causing trouble at school. His maternal grandparents find it challenging to take care of him. He meets his father often.
	Child H	F	13	10 years ago (aged 3, the parents first lived separately and later got divorced)	The father is 10 years younger than the mother. He left home 10 years ago and has lived physically away from the family since then, but the couple officially got divorced only recently. The child showed depression, anxiety and other emotional problems in this process. He meets the father often.

2. Research Process and Method

In 2019, 8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who were referred to Counseling Center E were provided with sandplay therapy. Written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guardians. Around 12 sessions of individual sandplay therapy were administered to each child,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his or her problematic behavior, until the second half of 2019. Each session lasted for 40 minutes and took place in the same therapy room.

Unlike quantitative research that compare statistically analyze numerical data,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like case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or problems of the subject in depth. In order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symbols that appear in the sandplay process, the study used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based on Stake's responsive evaluation. The responsive evaluation model of Stake (1995) focuses on the stakeholders' perceptions of experiences and activities, issues, vicarious experience by portrayals of evaluand, contexts, subjectivity, and pluralism. Responsive evaluation pursues direct, experiential understanding of a program, accommodating the "here and now." In addition, the symbolic meanings of figures apparent in sandplay therapy were identified and describ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ethod of Yin (2003). Yin's approach is highly effective in describing the significance of a specific social phenomenon in a comprehensive and deep manner.

While each sandpicture of the entire sandplay process is important, the first ones are especially significant as they usually reflect the stories that will unfold, the self-image within, the theme of healing, and the client's psychological energy and inner resources. In examining the symbols, the first sandpicture and a later sandpicture that showed significant transformatio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einrib, 2004).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groups by age: the 7-year-old children (Child A and B) in the early childhood group, the 9-year-old children (Child C and D) in the middle childhood group, the 11-year-old children (Child E and F) in the late childhood group, and the 12-13-year-old children (Child G and H) in the early adolescence group. The grouping was done based on the theoretical knowledge that children display different problem behaviors and use different sandplay symbols according to their age and gender (Kim, Park, & Choi, 2010; Lee & Park, 2011). Audio and video recordings were implemented in each session so as to better analyze each participant's sandpictures, verbal reporting, and behaviors.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is strictly on-site research, given that client children conduct work at a place where sandplay therapy is experienced and executed, the researcher and the client children jointly focus on inner experiences, and discover and reflect on meaning through mutual experiences.

In an effort to rule out bias and subjectivity, the researcher shared the analyzed data with fellow researchers and received feedback. The interpretation and symbolisms of sandpictures were analyzed repeatedly. The researcher also received a supervision for the entire sessions, discussed ways for improvement with fellow researchers, and was faithful to each session.

3.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researcher is a Ph.D. candidate in psychotherapy with more than 12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in sandplay therapy. In order to exclude researcher bias that can occur in qualitative research and also to secure reliability in terms of the client's comments about the sandpicture, behaviors observed from the client, and various aspects of the sandpictures, the researcher received group supervision from an experienced sandplay therapist on the first, middle, and last sessions. In addition, two Ph.D. students with more than 12 years of sandplay experience also confirmed the researcher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sandpictures for validity.

During the entire research process, the researcher engaged in a triangular verification method to discuss the entire sessions with a supervisor and other researchers three times as well as peer review, and modified, supplemented,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earch findings accordingly.

4. Ethical Considerations

Guardians of the participants were informed in advance that each therapy session can be audio and video recorded, and that the recorded materials will not be disclosed other than for supervision, which can enhance the quality of therapy, and/or academic purposes. Written consent was also received.

The participants and their guardians were also informed that anonymity is guaranteed, aliases are used to prevent all personal and sensitive information from being disclosed, all data will be discarded two years after the study is completed, and they can refuse to further participate in

the middle of the program at any time.

III.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1. Negative Mother Archetype in the Early Childhood Group (Age 7)

It took quite a long time for Child A to put his hands inside the sand tray. He had played on top of the sand tray with the lid closed for many sessions until he finally made physical contact with sand. In his first sandpicture, the “great king frog” bit the “tiger” and ate the “stag beetle.” The bad aspects swallowed the good aspects. The mother that devours and brings death is a negative mother archetype (Ammann, 2009).

In session 10, however, the sandpicture showed nurture and healing. The play involved giving animals a piggyback ride in the water, taking them out of the water; the elephant and the great king frog shaking hands; the poison being taken out of the spider; and the shark and the spider waking the sleeping dinosaur and treating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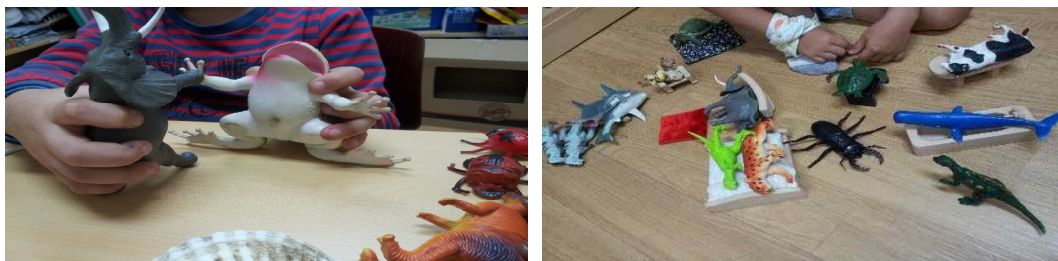


Fig. 1. Child A's sandpictures from session 1 and session 10

Child B's first sandpicture showed scenes of cooking in which he said, “You will be starved. No dinner!” showing the presence of a cold, negative mother archetype energy that impedes growth and brings regression (Jung, 2002). But his sandpicture from session 7 showed nurture, in which food was served, a birthday party was thrown, and people were fed.

Child A's sandplay process showed transformation towards a nurturing and symbolic play (Kalff, 2010), in which he extracted poison from the feminine shadow aspect of the negative



Fig. 2. Child B's sandpictures from session 1 and session 7

mother archetype, awakened the sleeping dinosaur to get ready to bring things to consciousness, and brought the deep aspects of the unconscious to the brighter world by carrying it out of the water. Child A also exhibited changes in the outer world, being able to gradually control his impulses both at school and home. At first, Child A hesitated to touch sand, which reminded him of his very first memory associated with touching, and found it difficult to relax in front of the therapist. But he eventually began to feel secure in the therapy room and achieved healthy psychological development based on that feeling of security and familiarity along with his inner power and energy. Overall, his sandplay process showed a huge transformation in which the negative mother archetypal energy changed into one that is nurturing.

Child B's sandplay process began with a dark mother of nature that does not feed but entraps, which later shifted towards a mother that feeds and invigorates life. The relationship with the anima was established in an integrated way (Birkhäuser-Oeri, 2007). His sandplay process showed play of re-enacting his past: going back to his early childhood and repeating the wounding that he received from early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The mother symbol appeared at every re-enactment play, and the therapist continuously endured and accepted the play with warmth, which brought healing and transformation (Kalff, 2003).

The physical, emotional, spiritual, and relational presence of the therapist acts on the right brain of the client and brings immersion and expanded consciousness to the client, allowing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and bringing healing (Schore, 2021). Afterwards, Child B became more comfortable in being in a relationship with the therapist, and showed improved ability to pay attention during therapy sessions.

The two children, A and B, both showed improvement in terms of their problem behaviors.

2. Alchemical Purification and Transformation in the Middle Childhood Group (Age 9)

In session 1, Child C firmed the sand with water and used toy molds to create sand rabbit and frog faces. The play of creating pre-designed shapes with mold can often be observed in children in need of a stable base. Then the child said, "I'm going to have a ritual for them" and wrote two names on a popsicle stick. He created a mound that looked like a grave and stuck the popsicle stick on top of it, like a gravestone. In session 6, Child C put a popsicle stick inside a brazier and burned it. He put the fire out by pouring sand over it, buried the brazier inside sand, and created a round mound which he called a "graveyard." Burning and killing what is no longer necessary in sandplay is related to the symbolism of alchemical transformation (Turner, 2009).

The two names that the child wrote on the popsicle stick in session 1 are "bunny" and "puppy," which represent the child's young, premature Self that needs protection. Jung said that the growth of the consciousness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experience of death. What has existed before has to die, dissolve, and go through a period of decay before being "born again" into a better state (Jung, 1967/1983).

Later in the sandplay process, the child burned the popsicle stick inside a red brazier. This is a scene that represents a sort of a psychological death that the child is yet unaware of. Covering the brazier and what is left inside of it with sand, as if creating a grave, and taking it out again is like becoming red after a psychological death.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as "a new consciousness" taking place, one that is much more extensive than the one before. Fire can represent active emotions, inner heat, pain, and difficulties but at the same time can signify "purification and transformation" (Ammann, 2009).

Child C's play involved burning his young and premature aspects to death in order to accept his negative aspects and make them anew. Theme of funeral was repeatedly found, which represented the transformation toward dissolution and acceptance (Ammann, 2009). Afterwards, the child showed some changes in the outer world, trying to control his behaviors and showing his will to gradually overcome his problem behaviors.

Child D created a round mound at the center of the tray and repeatedly buried and uncovered a man and a girl in it. She said they are buried in the "desert" by the sandstorm.



Fig. 3. Child C's sandpictures from session 1



Fig. 4. Child C's sandpicture from session 6

This is a representation of an empty uroborous. The man and the girl may symbolize her separation from her father.

When the constitutions of the Self are damaged, the Self constellates in the sandplay process. Through the constellation of the Self, the client attempts to restore life's order and meaning from early loss and trauma and, in term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tries to complete the pre-ego development stage (Turner, 2009).

There is a figure of Chibi Maruko-chan¹⁾ inside a bathtub, immersed in water. In session 9, Child D placed a bathtub in the corner of the tray, a lotus flower at the center of the tray and Shin-chan²⁾ on top of it. She repeatedly buried and unearthed Shin-chan, placed a boy and a girl holding a water jar, and brought a watering can to spray water over the tray as if it is raining.

1) A Japanese manga series depicting the simple, everyday life of Momoko Sakura, a young girl everyone calls Maruko, and her family in suburban Japan in the year 1974.

2) A Japanese manga series featuring the adventures of the five-year-old Shinnosuke "Shin" Nohara and his parents, baby sister, dog, neighbors, and best friends.

Shin-chan on the lotus flower is the archetype of the young Self. The boy and the girl with a water jar are also an archetype. The flowing water is the energy of the soul that brings vitality to human beings. The source of it is the unconscious from which new life energy can always be created; it is the act of discovering the source of the vitality within oneself, becoming conscious of one's power, and drawing out the life energy (Ammann, 2009). The theme of baptism from the spraying of water showed purification and separation in the alchemical process. The immersion in water brought regression to an unconscious and amorphous state, bringing a relative movement towards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Ammann, 2009).

Child D displayed a theme of baptism by spraying water and a figure immersed in water, which showed her willingness to move towards a new consciousness (Ammann, 2009).

Child D formed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therapist and her overt actions were reduced. She became brighter and also showed growth in terms of her positive aspects.



Fig. 5. Child D's sandpicture from session 1



Fig. 6. Child D's sandpicture from session 9

3.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Struggles in the Late Childhood Group (Age 11)

Child E's first sandpicture contained a giant snake coiled up at the center of the tray. Inside it is a boy, a mother, and a father figure. The boy is holding up a flag as if he is surrendering. The child explained that the family will eventually be eaten by the snake. The father and the son are shocked by the presence of the snake; Shin-chan is watching them; Luffy³⁾ and Chopper⁴⁾ are strolling along; and the Smurfs are throwing a Halloween party.

The spiral, like the maze, is a symbolic shape. In an initiation, one goes into a spiral maze and dies and is born again symbolically before being able to come out of it. The Smurfs are throwing a party for the dead to celebrate this symbolic death and rebirth.

One who goes through an initiation goes into the mother's body to die and be born again from there, which makes the spiral a symbol of the womb (Ammann, 2009). The direction towards which the spiral goes is related to the constellation of the Self that goes towards the center.

The constellation of the Self in Child E's In the first sandpicture, the child appears to be surrendering to his parents. And in session 10, a round mound appeared at the tray's center. The mound was a snow-covered volcano that erupted at first but later became an igloo in which three penguins lived. The child kept putting the penguins in and out of the igloo.



Fig. 7. Child E's sandpicture from session 1



Fig. 8. Child E's sandpicture from session 10

3) Protagonist of the Japanese manga series One Piece whose body gained the properties of rubber after unintentionally eating a Devil Fruit.

4) An anthropomorphized reindeer doctor in One Piece.

When the constitutions of the Self are damaged from initial loss and trauma, the sandplayer attempts to restore life's order and meaning by constellating the Self at the center of the sand tray (Turner, 2009). The attempt to constellate the Self, i.e., to bring order and centralization, was observed in the child's later sandpictures (Ammann, 2009).

The symbolism of the baby penguin that still needs protection from the igloo represents the frozen, wounded, and emotionally damaged Self of the child.

Child F's first sandpicture showed a battle between the mother realm and the father realm; soldiers and archetypal animals are in an intense conflict. Kalff (2003) said that the symbolic image for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in young boys is usually represented by battles. The manifestation of consciousness in sandplay appears in the form of confrontation between two conflicting locations.

At this stage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the ego becomes separated from the mother energy of the unconscious. The ego functions as a growing, autonomous psychological agent and identifies itself with the masculine consciousness, which creates opposite conditions like the feminine and the masculine and darkness and light. The two struggling opposites that confront each other can also be an image with bright aspects that goes counter to an image with dark aspects.

In session 9, a volcano in the mother realm erupted, killing the dinosaurs in other realms. In reality, the mother was very depressed and depended on alcohol when she was alone or felt troubled. She did take medications but being a weak-minded person she is, she would talk thoughtlessly or melt down in front of the child, which exacerbated his anxiety.

In sandplay, a healthy ego separated from the mother must grow into one that identifies



Fig. 9. Child F's sandpicture from session 1



Fig. 10. Child F's sandpicture from session 9

with the masculine energy. In this stage, the lava from the erupted volcano in the mother realm killed all dinosaurs, showing how the child is suffering from strong psychological pain.

The child's strength and struggle to move toward a healthy flow of life appeared as a play that reached a climax through a strong expression of anger. The child must endure the wounding in order to move toward a healthy flow of life (Neumann, 1973), and this was done with the support of the therapist. In the outside world, the client's father willingly took time to play soccer with his son and talk to him, through which the child was able to relieve his mental and physical tension.

The two children represented the attempt towards centralization through the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the struggle to separate from the mother in their sandplay process. After that, they formed a comfortable and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therapist, were able to open themselves up, and gradually showed reduced overt behaviors in the outer world.

4. Emergence of the Father Archetype in the Early Adolescence Group (Age 12-13)

In his first sandpicture, Child G created a mound at the center of the tray. He explained that the skeleton figure holding a cross is the "god of death" who manages people's lives. When the candles around the god of death go off, someone dies. The candles ought not be blown out by someone from outside but by destiny. If someone tries to blow the candles out, the balance will be broken and people's destiny will change for the bad. Death is represented by destruction in sandplay. The earth father, whose source of power is the cyclic life energy of the earth, controls the cycle of life and death with power and authority. The personification of the father archetype is related to law and order, usually represented by a judge or a wise man (Edinger, 1972). The god of death at the center of the child's sand tray must be separated from the mother in order to find its intrinsic power. The shift towards the father was represented by symbolisms identifying with the father archetype, which has the power to control law and order (Edinger, 1972).

In session 10, Child G's sandpicture represented a village in which the villagers can only live on by drawing water from the well. This sandpicture showed transformation towards "adaptation." The well symbolizes the intention to use what is down below, and that there



Fig. 11. Child G's sandpicture from session 1



Fig. 12. Child G's sandpicture from session 10

exists a means to access something deep down (Turner, 2009). Drawing water from the well is symbolic, like fishing; it brings what is in the deep unconscious up to the brighter world (Kalff, 2010). Child G expressed his repressed emotions in the unconscious at the beginning of sandplay. But he managed to gradually overcome them and achieved growth in terms of becoming adapted to the collective through positive and conscious effort (Kalff, 2010).

Child H's first sandpicture contained a penguin standing in front of an owl whose face was turned away from the penguin, and a black boy sitting between them. The way that the father penguin appeared to be glaring at the mother whose face was turned away was further accentuated by the child's comment: "My dad doesn't raise me, so my mom puts up with [raising me.] [Mom is] more stupid!" In session 9, a child riding on a helicopter was flying from right to left. The child, who was living with her mother, was under stres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t home and frequent conflicts with her mother. Inside, the child wanted to live with her father, who graduated from a prestigious college and is financially well off, so that she could be supported academically. "I want to play princess. I told my dad that I want to live with him, and he said okay!" she said with pleasure. Child H's father was a man of good character. He saw her once a week and gave her academic advice and financial support.

The penguin in the first sandpicture is a symbol of nurture; it has the energy to enhance the quality of nurture and of life. In reality, father penguins would starve themselves for about 115 days to incubate the egg, while their mates go off to find food. The helicopter in the later sandpicture traveling from right to left represents a journey towards the client's inner world or the collective unconscious, which is significant. The father in the sandplay can also have as strong "parental love" as the mother and therefore can fill in for the mother. The father

archetypal images in both children's sandpictures can be interpreted as a healthy father archetypal image constellat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s in early childhood and also through the re-enactment of forming a relationship with the therapist. This represents growth towards a health development process, in which the child in early adolescent phase overcomes his dependence on the mother and shifts to the patriarchal world so as to develop "masculine consciousness" (Jang, 2017).



Fig. 13. Child H's sandpicture from session 1



Fig. 14. Child H's sandpicture from session 9

In Child G's and H's sandplay processes, the father archetype appeared as the energy that brings order and enhances the quality of nurture and life. In the outer world, they began to show less overt disobedience and gradually overcame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Data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s' sandplay processes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methodology of Stake (1995). The outcome is four themes and 6 symbolic elements that fall under the themes (in the early phase of the therapy and after therapy), which are presented in Table 2:

The four dominant themes in the sandpicture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are: "negative mother image," "alchemical purification and transformation,"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struggles," and "Emergence of father archetype."

The symbolic elements shown in the early sandplay process by age are as follows:

- ▶ Early childhood (age 7): A great king frog devours a tiger and a stag beetle; Cooks but starves the child.
- ▶ Middle childhood (age 9): Makes frog and rabbit imprints on sand. Creates a mound and

Table 2. Dominant Theme and Symbolic Elements Identified for Meaning Analysis

Participant	Dominant theme by age	Symbolic elements		
		Early phase of the therapy	Changes after therapy	Changes by gender
A (M)	“Negative mother image”	A great king frog devours a tiger and a stag beetle.	Takes poison out of the spider. Wakes up the sleeping dinosaur, takes it out of the water, and treats it.	From devouring to treatment and nurture
B (M)		Cooks but starves the child.	A play of nurture involving cooking, a birthday party, etc...	From confinement to nurture and care
C (M)	Age 9 / “Alchemical purification and transformation”	Makes frog and rabbit imprints on sand. Creates a mound and sticks a gravestone of the frog and the rabbit.	Burns the gravestone of the frog and the rabbit inside a brazier and continues the play of funeral.	From the manifestation of the Self to the consciousness of death
D (F)		A man and a girl are buried in a mound. They are buried by a sandstorm.	Places Shin-chan on a lotus flower, and sprays water over a boy-girl figure holding a water jar with a watering can. There is also the Maruko-chan figure taking a bath. A play of baptism took place.	From a time of isolated incubation to the resolution and purification of a deep conflict centered on emotions and relationships. A process of quick adaptation.
E (M)	Age 11 /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struggles”	A giant snake circles around a family in a spiral, threatening them. The Simpson family is holding a flag. Luffy and Chopper are on their way. Smurfs are throwing a Halloween party.	Volcano erupts. Three penguin brothers live in a snow-covered igloo, and the youngest penguin is protected. Constellation of the Self becomes centralized.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symbolic death. Symbols of coldness and care in an event celebrating the dead.
F (M)		Confrontation between soldiers and archetypal animals in the form of a battle	The eruption of a volcano in the mother realm kills all dinosaurs in other realms. A play involving the expression of emotions such as anger.	Expression of anger in the mother area amid a battle/struggle
G (M)	Age 12-13 / “Emergence of father archetype”	The “god of death,” who is a skeleton figure holding a cross, manages people’s lives.	Story of people becoming acclimated to the village life of being able to live on only by drawing water from the well.	From the god of death who controls law and order to the adaptation to village life.
H (F)		A penguin looking at an owl straight in the eye, and a black boy sitting between them. A scene from the participant’s childhood when she needed care.	Shin-chan traveling from right to left on a helicopter. Children taking a rest.	From a relationship with a cold mother to the emergence of a father archetype with a warm energy to nurture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sticks a gravestone of the frog and the rabbit; A man and a girl are buried in a mound. They are buried by a sandstorm.

- ▶ Late childhood (age 11): A giant snake circles around a family in a spiral, threatening them. The Simpson family is holding a flag. Luffy and Chopper are on their way. Smurfs are throwing a Halloween party; Confrontation between soldiers and archetypal animals in the form of a battle.
- ▶ Early adolescence (age 12-13): The “god of death,” who is a skeleton figure holding a cross, manages people’s lives; A penguin looking at an owl straight in the eye, and a black boy sitting between them. A scene from the participant’s childhood when she needed care.

In sum, prominent symbolic elements by age in the early phase of sandplay therapy were as follows: threat to the mother-child unity and neglect in the early childhood group (age 7); instability with a need for a stable base, concealment, and confinement in the middle childhood group (age 9); threat, siege, confrontation, and journey in the late childhood group (age 11); and lack of vitality, confrontation, and neglect in the early adolescence group (age 12-13). Early symbols were mainly related to the theme of wounding.

The symbolic elements shown by age in the latter phase of the sandplay process are as follows:

- ▶ Early childhood (age 7): Takes poison out of the spider. Wakes up the sleeping dinosaur, takes it out of the water, and treats it; A play of nurture involving cooking, a birthday party, etc.
- ▶ Middle childhood (age 9): Burns the gravestone of the frog and the rabbit inside a brazier and continues the play of funeral; Places Shin-chan on a lotus flower, and sprays water over a boy-girl figure holding a water jar with a watering can. There is also the Maruko-chan figure taking a bath. A play of baptism took place.
- ▶ Late childhood (age 11): Volcano erupts. Three penguin brothers live in a snow- covered igloo, and the youngest penguin is protected. Constellation of the Self becomes centralized; The eruption of a volcano in the mother realm kills all dinosaurs in other realms. A play involving the expression of emotions such as anger.
- ▶ Early adolescence (age 12-13): Story of people becoming acclimated to the village life of

being able to live on only by drawing water from the well; Shin-chan traveling from right to left on a helicopter. Children taking a rest.

As can be seen, prominent symbolic elements by age in the latter phase of sandplay therapy were as follows: treatment, becoming conscious, and nurture in the early childhood group (age 7); creation, centrality, cleansing, and baptism in the middle childhood group (age 9); expression of anger, protection, centrality, and knocking down in the late childhood group (age 11); harmony, airplane take-off in the early adolescence group (age 12-13). Later symbols were mainly related to the theme of healing.

Differences by gender in terms of dominant symbols that appear in the early and the latter phases of sandplay therapy are as follows: Boys' symbols shifted from devouring to treatment and nurture, from confinement to nurture and caring, from the manifestation of the Self to the consciousness of death, and also showed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a symbolic death, protection in the ceremony of the dead, battles and struggles, expression of anger in the mother realm, rule over law and order by the god of death, and adaptation to the village life. On the other hand, girls' symbols showed a shift from a desire for emotional relationship during a time of incubation and an existing relationship with a cold mother to the emergence of a new father archetype with a warm energy to nurture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 process of fast adaptation, and the resolution and purification of deep conflict.

A direct gender comparison cannot be made as there are two girls out of the eight participants. Nevertheless, boys, who first showed undifferentiated state, confinement, struggle, and dominance, later showed nurture and an adaptation to the collective after symbolic death. As for their behavioral changes, problems of impulse control and overt defiant behaviors gradually improved both at home and school. Their attention problem also showed improvement.

Girls mostly showed changes in relationship problems: after facing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the emergence of a warm father archetype led to the resolution of conflicts. As for their behavioral changes, they gradually broke away from emotional problems like depression and anxiety and developed bright, positive aspects.

IV.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d the symbols in sandplay processes of children whose parents were divorced when they were 2 to 4 years old, which is a developmentally sensitive period, by age and gender and also contemplated key symbols and changes in the children's behaviors after therapy. The study yielded several findings. The common themes found in sandpictures are as follows:

First, symbols of a negative mother image were predominantly found in the process of those in the early childhood group (age 7; all male). There was the devouring mother archetype that devours the good and brings death, represented by the great king frog that devoured the tiger and the stag beetle. There was also the cold negative mother archetype that a negative maternal prototype that interrupts growth and brings regression, represented by the client's comment: "You will be starved. No dinner!"

All children in this group have the experience of receiving unstable care. Their caretakers changed frequently and most of them are living with their grandparents. Symbols in early sandpictures, in which trauma is re-enacted to break away the negative mother complex, a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examined mother symbols in sandpictures of children who experienced relationship trauma (Lee & Lee, 2019).

In this study, the negative mother symbol is expressed as the expression "soil eats," an element of the earth. Negative mother symbol, in this study, is expressed through the comment, "The soil devours." Soil is an element of Mother Earth. Symbols of the negative mother complex in the early childhood group were consistent with the first stage of sandplay process, which is the partial resolution of key complexes, identified by Weinrib (2004), who integrated Jung's individuation process. This indicated that among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affected by the negative mother complex, boys aged seven go through the process of re-enacting their past negative experiences in the sand tray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negative mother complex and achieve healthy separation and independence.

Second, the predominant symbol in sandpictures of the middle childhood group (age 9; boys and girls) is "alchemical purification and transformation." The premature aspects that need protection, which was represented by the rabbit and the frog, were burned inside a red brazier. A symbol representing psychological death, the archetype of a childlike "I," represented by Shin-chan on a lotus flower, a boy and a girl holding a water jar, and Maruko-chan in a

bath tub show the theme of baptism, which shows a new movement towards the development of the consciousness through the alchemical process of purification and separation (Ammann, 2009).

Such findings are similar, in terms of the context, to the findings of a study by Jeon (2017), in which children with emotional problem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because of attachment issue overcome the negative mother by going through death and rebirth through water in sandplay therapy. As a matter of fact, children in the middle childhood group are overly obsessed with other people's judgment.

Peer judgment and harassment has a detrimental effect, especially on sensitive children, which is related to Child C's refusing to go to school early in the sandplay process (Jung, 2013). Furthermore, in the study of Jin (2019), the wounding from the absence of parents was first described as a "disaster situation" with a sandstorm and later picture showed healings with "sand rain" falling down. Such an outcome is similar to what was observed in Child D's sandpictures, in which there was a sandstorm in the desert but later the client sprayed water in the tray as if raining and engaged in a play of baptism. Their similarities can be found in that the energy flow is blocked due to deep conflict in the unconscious, then a new energy comes in through the baptistic ritual and leads to a "rebirth" that liberates oneself.

Psychologically, "death" symbolizes a conscious death or, more specifically, the death of the conscious ego. After psychological death, a new consciousness comes into place; a new, brighter, wider way of consciousness comes to existence. Re-constellating what is within ourselves and dissolving old psychic structures brings healing, through which we are born again as "ourselves," one that is different from our old selves (Ammann, 2009).

Symbols of "alchemical purification and transformation" found in the middle childhood group (age 9; boys and girls) can be seen as an inevitable development task for children in this group who are sensitively affected by peer relationship.

Third,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struggles" is the predominant sandplay symbol of the late childhood group (age 11; all boys). The symbolism of the "spiral snake" that is wrapping the family and the symbolism of the "struggle" between two opposite sides are an inevitable development task for bright images, which counter dark images, to appear.

This is similar to the observations made in the study of Kim (2017) in which Korean-Chinese children who did not live together with their parents repeatedly took figures in and out of the sand tray. The use of water and putting figures in and out of an igloo by a child with

emotional problems of anxiety and depression due to attachment issues could be interpreted as an act of repeatedly going in and out of the womb and, in a larger sens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Jeon, 2017).

When constitutions of the Self become damaged in the early parent- child relationship, the Self constellates in the sandplay process. Through the constellation of the Self, which puts one at the center, children try to restore life's meaning and order from initial loss and trauma and, in term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attempt to complete the pre-ego stage (Turner, 2009).

The “spiral snake” surrounding the family is a universal symbol of totality, wholeness, synchronicity and primal completion, and is the most natural form of divinity. As the sun the spiral represents masculine energy, but as the spirit and the mind or the ocean that surrounds the earth, the spiral represents the feminine principle of the mother as well as the “uroborous” that signals the beginning and the end (Lee, 2017).

Symbols of the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struggles” can be seen as the child's struggle to reach Weinrib's second stage of sandplay development, which is the “manifestation of totality” or the “constellation of the Self.” The way Child F expressed his anger towards his mother through the play of an erupted volcano killing all dinosaurs is in line with the study of Kim (2017), in which a child who lived in separation with his parents finally managed to come in contact with his genuine self after outwardly expressing his deep inner anger, which could not be communicated to others, through a volcano.

Fourth, the prevailing sandplay symbol in the early adolescence group (age 12-13; boys and girls) is the “emergence of father archetype.” The “god of death” representing law and order and the father penguin, or the Great Protective Father, glaring at the owl are the symbols of the father archetype.

Jung said that the other of the opposite sex is a strong emotional determinant of development, and girls or women who are stuck in this stage would become inflated and imagine herself as a partner of the divine father and even feel animosity towards the mother (Weinberg, 2011).

This can explain Child H's wishing to live with her father; there may be an implication that she is to separate from the mother and grow from a girl into a woman. Such findings are similar to that of the study of Lee (2010), in which the sandplay process of an anxious adolescent showed a strong yet peace-loving chief emerging as a new animus figure. In other

words, there is an overcoming of the matriarchal dependence and a shift towards the patriarchal world, which facilitates masculine consciousness, in early adolescence (Jang, 2017).

Sandplay symbols found in the early adolescence group represented the outer world or the conscious world, and insight, and indicated the “emergence of the father” archetype who guides his children to the outer world or the conscious world. This is related to entering the last stage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the world of the father or the world of the sun, identified by Neuman.

Early sandpictures showed the following symbolic elements by age: from mother-child unity to threat and neglect in the early childhood group (age 7); instability in need of a secure base, concealment, and confinement in the middle childhood group (age 9); threat, siege, confrontation, and journey in the late childhood (age 11); and inanimateness, confrontation, and neglect in the early adolescence group (age 12-13).

Many of the symbols in early sandpictures of children of different ages were under the theme of wounding. According to Michell and Friedman (2009), the theme of wounding often appears in early sandpictures of clients who experienced trauma or the loss of a family member. Thus, the theme of wounding like threat, neglect, instability, concealment, confinement, siege, confrontation, inanimateness that appeared in the early phase of the sandplay process appear to have been manifested due to the trauma (i.e., parents’ divorce) that all participants experienced between the age of 2 to 4, a period when children are developmentally sensitive.

Later sandpictures revealed the following symbolic elements by age: treatment, becoming conscious, and nurture in the early childhood group (age 7); creation, centrality, cleansing, and baptism in the middle childhood group (age 9); expression of anger, protection, centrality, and knocking down in the late childhood (age 11); and harmony, airplane take-off, and childbirth in the early adolescence group (age 12-13).

Many of the symbols in later sandpictures are those that belong to the theme of healing. The theme of healing is often seen in sandpictures, especially later ones, of clients who are healthy or experienced minor trauma in early life (Michell & Friedman, 2009).

The theme of healing like becoming conscious, protection, nurture, treatment, centrality, cleansing, baptism, creation, harmony, airplane take-off, and childbirth that appeared in the later phase of the sandplay process are in sync with the findings of Kim and Kim (2016), who claimed that client grow and advances as the therapy progresses, and that the symbolic elements

in sandplay become expanded, enriched, and changes for the positive.

Key symbols that appear in early sandplay processes and after sandplay therapy had their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Boys' symbols shifted from devouring to treatment and nurture, from confinement to nurture and caring, from the manifestation of the Self to the consciousness of death, and also showed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a symbolic death, protection in the ceremony of the dead, battles and struggles, expression of anger in the mother realm, rule over law and order by the god of death, and adaptation to the village life.

On the other hand, girls' symbols showed a shift from a desire for emotional relationship during a time of incubation and an existing relationship with a cold mother to the emergence of a new father archetype with a warm energy to nurture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 process of fast adaptation, and the resolution and purification of deep conflict.

Because there are only two girls among eight participants, gender comparison is clearly difficult. Nevertheless, there were observed differences in the key symbols between boys and girls. Key symbols for boys shifted from undifferentiation, confinement, struggle, and domination to nurture, symbolic death, and adaptation to the collective. As for girls, there was a change from severance and transformation to conflict, confrontation, and emergence of the warm father archetype.

Overall, we saw changes in terms of the way they adapt to the outer world and resolve conflict in relationships. Such outcomes are similar to the results of a study by Lee and Kim (2011) that examined gender difference in children's ego development stages shown in sandplay, in which boys displayed a direct struggle with themes such as battle, fight, confinement and invasion against explicit targets while girls showed indirect representation of struggles with themes like conflict, isolation, and escape. In this study, boys showed many symbols related to physical forms of hostile aggression to dominate other children, and girls showed symbols of relational forms that affect other peer relationships as their focus is on forming intimate peer relationships.

Finally, gender difference in terms of behavioral changes after sandplay therapy was observed. Boys began to gradually control their impulse problems and rebellious behaviors were controlled at school and at home, and showed improved attention ability.

This was also proven in the study that examined the sandpictures of children with emotional anxiety and attention deficit issues (Kim & Kim, 2016) and also the study that looked into the

sandplay case of a 9-year-old boy who had trouble controlling his emotions (Kim, 2011), in which children's deviant behavior, aggression, and impulse issues were alleviated after therapy. As for girls, they showed changes in the inner world in terms of gradually overcoming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as well as in the outer world in terms of displaying less rebellious behaviors and developing a brighter personality. Such an outcome is consistent with the study that examined gender difference in children's ego development stages shown in sandplay (Lee & Kim, 2011), in which there was a growth towards the feminine and greater adaptation to relationships after sandplay.

As discussed above,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re-enacted negative emotions through symbols in sandplay and overcame major complexes so as to achieve ego development. With the support of the therapist, these children were able to dissolve their psychic structure and struggled to reach the constellation of the Self and towards growth.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and,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or future studies:

First, there were only eight participants, which means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not be generalized to apply to all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Future studies observing symbolic transformation in the sandpicture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refore need to involve a greater number of participants.

Second, the study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children who keep in touch with parents who live separately and those who do not. This factor needs to be considered in future studies.

Third, it would be significant to conduct not only a study of the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but also a separate study of the parents, as they too had to suffer the pain of divorce.

Fourth,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predominantly boys, which means that there was an imbalance of gender among the participants. Also, the appropriate number of participants and diversity by age were not considered.

While later studies would produce highly meaningful findings when taking the aforementioned limitation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still remains significant. This study administered individual sandplay therapy to children who experienced parental divorce at the age of 2 to 4, identified key symbols by age group and gender, saw positive behavioral changes in the outer world, analyzed key symbolic elements and confirmed that the symbols shifted from the theme

of wounding to the theme of healing.

As a result, it discovered that sandplay therapy has positive effect on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chaos from two separate worlds restored order and the pain from the early wounding was healed, relationship was re-enacted through symbols, psychic structures were dissolved, and growth towards the stage of Self constellation took place.

References

- Ammann, R. (2001). *Das Sandspiel: der schöpferische Weg der Persönlichkeitsentwicklung*. Düsseldorf: Walter. (Trans. into Korean in 2009)
- Ban, P-J. & Woo, J-Y. (2013). An Analysis of Changes and Themes in Delinquency and Aggression of Children in Crisis of Family Disorganization through Sandplay Therapy.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0(1), 65-100.
- Birkhäuser-Oeri, S. (2007). *Die Mutter in Märchen*. Fellbach: Bonz. (Trans. into Korean in 2012)
- Edinger, E. (2016). *Ego and archetype*. (Jang, M-K.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Görtz, A. (2016). *Sandplay: therapy with a child of divorced parents. Living your own life*. New York: Routledge.
- Jang, M-K. (2017). *Analytical psychological sandplay Therapy*. Seoul: Hakjisa.
- Jeon, J-H. (2017). A Case Study of on Sandplay Therapy for a Childre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Emotional Problems caused by Attachment. *The Study of Child-Family Therapy*, 16, 59-89.
- Jin, L. Z. (2019). Effect of sandplay therapy on loneliness,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of single parent family Korean-Chinese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Jung, C. G. (1967/1983). *Paracelsus as a spiritual phenomena*. In C. G. Jung, *Alchemical studies* (2nd ed.). CW13, Bollingen Series XX.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2002). *Archetypes and Unconsciousness*. C. G. Jung Institute of Korea. The Work of C. G. Jung: A Translation of Volumes 2. (C. G. Jung Institute of Korea. The Work of C. G. Jung a Translation Committee. Trans.). Seoul: Solbook.
- Jung, O-B. (2013).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Revised Edition*. Seoul: Hakjisa.
- Kalff, D. M. (2003).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Cloverdale, CA: Temenos

-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Kalff, D. M. (2012). *Sandspiel-Seine therapeutische Wirkung auf die psyche*. (Lee, B-S. Trans.). Seoul: Hakjisa.(Original work published 2010).
- Kang, E-S., Kim, M-N., Kim, S-A., Kim, Y-A., Bae, A-R., Song, M-G., Shin, Y-S., Yoo, M-E., Yoo, J-H., Yoon, S-J., Lee, K-M., Lee, D-H., Lee, M-J., Lee, S-M., Lee, Y-K., Jang, C-G., Jeon, S-H., Choi, H-S., Choi, H-J., & Han, S-H. (2018). *A book containing family trial cases and counseling guidelines*. Gyeonggido: Goyang Support in Uijeongbu District Court.
- Kim, K-N. (2011). Chan's Sandplay Story: Healing and Development in an Nine-year-old Boy. *Symbols and Sandplay Therapy*, 2(1), 29-53.
- Kim, S-S. & Kim, K-H. (2016). Analysis of the Wounding-Healing Themes in Sandplay Therapy Process for Children with Emotional Instability and Attention Deficit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6), 631-642.
- Kim, Y-S., Park, J-H., & Choi, J-W. (2010).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Seoul: Hakjisa (Inner Books).
- Kim, Y-S. (2017). Comparison of Story Expressions and Symbolic Expressions of Sandplay Therapy between Korean Chinese Parents and Children both Separated and Living Togeth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Korean Culture Symbolic Dictionary Composition Committee(Kang, S-P., Kim, M-K., Ye, Y-H., Yoo, S-G., Lee, K-T., Lee, K-M., Lee, K-Y., Lee, D-H., Lee, E-R., Lee, H-S., Lim, D-K., Jeong, Y-M., & Hwang, P-G.). (1992). *Dictionary of Korean Myths and Symbols 1*. Seoul: Doosan Dong-A.
- Lee, E-C. & Kim, S-H. (2011). A Study of Gender Differences in Ego Development Process of Children through Sandplay. *Korean Journal of Sandplay Therapy*, 7(4), 23-56.
- Lee, M-A. (2010). Coming of Age: Sandplay Therapy of an Anxious Youth. *Symbols and Sandplay Therapy*, 1(1), 41-60.
- Lee, M-S. & Park, B-J. (2011). Children's use of symbols by age and gender in sandplay picture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5(1), 29-42.
- Lee, Y-J. & Lee, J-S. (2019). A study about the maternal symbols in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of the child who experienced relationship trauma.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14(2), 77-96.
- Lee, Y-S. (2017). Symbol of Threshold for Spiritual Rebirth: Death.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8(1), 49-65.
- Mitchell, R. R. & Friedman, H. S. (2009). Sandplay themes expressed in the healing process.

Hong, Eun Joo · Kim, Hyo Eun / A Study on the Symbols in the Sandplay Therapy of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by Age

International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1-25.

- Neumann, E. (1973). *Amor and psyche: The psychic development of the feminine, a commentary on the tale by Apuleius* (R. Manheim, Tra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53).
- Schore, A. N. (1991-2021). *Right brain affective processes operating at levels beneath conscious awareness are dominant in development, psychopathogenesis, and psychotherapy*. February 2022 Korean Society of Sandplay Therapy Online Academic Seminar.
- Schore, A. N. (2019). *Right Brain Psychotherapy (Norton Series on Interpersonal Neurobiology)*. W.W. Norton & Co Inc.
- Sim, H-O. (2011). A Case Study of a 5th Grade Girl from a Divorced Family Recovering Femininity Through the Sandplay Therap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1), 55-65.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Turner, B. A. (2005).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Cloverdale: Temenos Press. (Trans. into Korean in 2009)
- Von, Franz, M-L. (1997). *Alchemical active imagination (2nd ed.)*. Boston & London: Shambhala.
- Weinberg, B. (2010). *The elements of sandplay therapy*. Data collection of the 2010 Winter International Workshop of the Korean Society of Sandplay Therapy.
- Weinberg, B. (2011). *The elements of sandplay therapy*. Data collection of the 2011 Wi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Sandplay Therapy.
- Weinrib, E. (2004). *Images of the self: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Cloverdale, CA: Temenos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Weinrib, E. (2010). *Images of the self*. Cloverdale, CA: Temenos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Birmingham: Thousand Oaks, CA: Sage.

투고일 : 2022. 03. 29

수정일 : 2022. 05. 13

게재확정일 : 2022. 05. 18

